

■
2018 강원학 연구보고 4

강원도 민북마을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미래

Gangwon-do Villages in Civilian Control
Zone : Experience, Memory, Future

박 소 영
권 태 상
김 덕 우



강원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강원학연구센터
The Institute of Gangwon Studies

발간사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학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학 관련 연구 논문 공모를 실시하여 강원학 연구의 기초 및 토대 연구 주제로의 적합성을 고려한 4편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한 편인 「강원도 민북마을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미래」는 강원도 민북마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철원군 유곡리와 양구군 해안면의 사례를 통해 민북마을의 특징 및 정체성을 파악함으로써 평화통일 시대에 맞춰 민북마을의 변화를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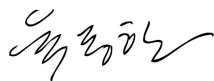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에 따라 민간인 통제구역이 설치되었고, 민간인 통제구역에는 통일촌, 재건촌, 자립안정촌 등 다양한 민통선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철원 유곡리와 양구 해안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민북마을 형성부터 현재까지 변화의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이 민북마을이라는 정체성은 공유하고 있지만 마을의 설립 목적이나 발전과정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민북마을 주민 1세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민북마을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집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소영 산림청 남북산림협력과 연구사, 권태상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우 강사와 심의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전문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8년 12월

강원연구원장



목차

요약문

I. 서론	1
II.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정리	5
III. 민북 마을의 이해	9
1. DMZ와 민북마을의 역사	9
2. 철원 유곡리와 양구 해안면의 민북마을	14
2.1 철원 유곡리	14
2.2 양구 해안면	16
IV. 인터뷰 대상자와 주요 증언내용	17
1. 철원 유곡리	17
1.1 면접 대상자	17
1.2 동국대학교 DMZ연구센터에서 협조 받은 구술 대상자	18
1.3 면접 요약	18
1.4 기타	19
1.5 조사 선정 배경	19
2. 양구 해안면	20
2.1 면접 대상자	20

2.2	면접 요약	20
2.3	마을 선정 배경	21
 V. 구술로 본 민북마을의 성립과 오늘		23
1.	유곡리의 성립과 발전	23
1.1	입주와 마을 형성	23
1.2	민북 마을의 변화와 갈등 양상	41
1.3	마을주민들이 본 마을의 미래	55
2.	해안면의 성립과 발전	59
2.1	민북마을의 역사적 형성	60
2.2	민북마을의 해체와 갈등 양상	77
2.3	마을주민들이 본 마을의 미래	80
 VI. 결론		85
1.	유곡리와 해안면 비교	85
2.	정책제안	88
2.1	지역 재생사업의 조건	88
2.2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접경지역 경제벨트	89
2.3	지역 재생사업의 과제	89
2.4	주민-지자체-국가가 연계한 접경지역 재생사업 제안	90
3.	연구의 한계	92
 참고문헌		93
Abstract		95

표목차

<표 Ⅲ-1> 행정구역별 민통선 마을 분포	10
<표 Ⅲ-2> 유형별 민통선 마을	11
<표 Ⅲ-3> 미해제 민통선 마을현황(2016년 현재)	11
<표 IV-1> 철원 유곡리 면접 대상자	17
<표 IV-2> 동국대 DMZ연구센터 면접 대상자	18
<표 IV-3> 양구 해안면 면접 대상자	20

그림목차

<그림 Ⅲ-1> 철원군 유곡리 위치	15
<그림 Ⅲ-2> 양구군 해안면 행정구역도	16
<그림 Ⅲ-3> 양구군 해안면 편치볼 지형	16
<그림 V-1> 유곡리 입구 표지석	27
<그림 V-2> 유곡리를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검문소	35
<그림 V-3> 현재는 이러한 입주증을 통해 마을 주민은 출입이 용이해졌다.	45
<그림 V-4> 마을 초입의 입주초기 관련 자료	52
<그림 V-5> 유곡리는 현재도 외관상으로 아주 좋다	56
<그림 V-6>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57
<그림 V-7>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해안분지. 고산지대에 위치하면서도 분지지형인 것이 인상적이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인삼 재배가 활발하다.	62
<그림 V-8> 만대리에 놓여있는 ‘새농촌건설운동비’	63
<그림 V-9> 경계를 서지 않는 해안면 초소. 철원 유곡리와는 통제 정도가 다르다.	66
<그림 V-10> 통일관 옆 과수원. 해안면은 과일 재배가 가능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 평균 기온이 올라갔다.	77

요 약 문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에 따라 민간인 통제구역이 설치되었고, 민간인 통제구역에는 통일촌, 재건촌, 자립안정촌 등 다양한 민통선 마을이 만들어졌다. 민통선 마을은 기본적으로 휴전선에 접해 있으면서 분단의 일상성과 정체성을 간직한 공간이 되었다. 특히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군사적 긴장감이 열려져있던 다른 지역에 비해 민통선은 분단의 긴장과 일상의 통제가 지속되었다. 또한 마을의 형성과 발전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국가 및 군대의 영향력이 지속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민북마을이 모두 비슷한 발전과정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통일촌, 재건촌, 자립안정촌 등 설립 목적, 휴전선과의 거리 등에 따라 발전 과정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철원군 유곡리는 남북 체제경쟁을 위해 국가의 기획 아래 만들어지면서 주민선발부터 마을 운영까지 국가와 군대의 강력한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양구군 해안면은 민북마을 형성 이전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부터 여러 차례 다른 주민들이 수혈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졌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민북마을의 일반적인 정체성은 공유하고 있지만 마을의 발전 양상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북마을은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마을이 형성된 후 60년 이상이 지난 지금 1세대 이주민의 사망과 2세대의 이주, 지역개발로 인한 민북마을의 해체 등으로 민북마을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변화는 휴전선 근처에서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민북마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를 인지·수용할 수 있고 양측을 조율할 수 있는 접경지역으로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민북마을 주민 1세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저물어가는 분단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앞으로 진행될 민북마을의 변화를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I. 서론

2018년 8월 7일 오전 5시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통제선 검문소에서 군인에 의한 민간인 총탄 발사 사고가 발생했다. 새벽부터 민통선 안에 있는 농지에 들어가야 하는 농민과 초병의 다툼은 결국 인명 피해를 입은 사고로 기록되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사회담이 진행되고 종전협정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도 민통선은 여전히 분단 한복판에 있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분쟁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 민통선 안에 민북마을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강원도는 한반도의 유일한 분단 도(道)로 남북 냉전의 최전방이며 접경지역이다. 휴전당시 양 측이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선을 군사분계선(휴전선)으로 설정하고 남과 북 양쪽으로 2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였다. 남한은 이 비무장지대 남쪽으로 1,048km²의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설치하였다. 민북마을은 이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쪽에 있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민통선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하다. 통일촌, 재건촌, 자립안정촌 등 다양한 유형의 민북마을은 민간방위체제 구축과 유희농지 개간, 대북 체제선전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이 연구는 민북 마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마을 주민들 스스로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고자 한다. 마을 주민들은 분단의 역사를 최전선에서 겪으며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에게 속았다는 분노와 이제는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는 절망감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의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이들은 마을의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최전선에서 국가 폭력에 억눌려 고통 받았던 존재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은 일종의 치유의 과정이다. 구술을 통한 트라

우마 치유 효과에 대해 한 선행연구는 “언어로 발화되는 억압된 기억은 치유로 가는 첫걸음이고 그 자체로 치유의 힘을 발휘한다.”¹⁾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이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마을 주민들의 미래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발표되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며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파주지역은 한강하구와 판문점을 활용한 수산업, 관광업분야 발전계획, 개성공단과 연계한 배후 물류기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의 민북마을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마을 땅값이 올라가면 토지 원소유자들에게만 유리할 뿐 자신들은 더욱 살기 어려워진다고 여기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강원도 - 지자체 - 마을주민들이 연결되고 스스로 주체가 되는 마을 재생사업과 접경지역 개발 사업이 연계되어 마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마을 경제가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접경지역 개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분단체제하에서 고통 받았던 민북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단체제하에서 고통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최근 들어 조금씩 정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분단체제하에서 소위 간첩조작 사건과 같은 사건들에 대한 정리 작업을 통해 역사적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민북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역사적 정리 작업에서 한발 비껴서 있다. 이 연구는 미약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이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사업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분단체제에서 기인한 고통과 절망감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

1) 김호연·엄찬호, “구술사를 활용한 인문치료의 모색 : 기억, 트라우마, 그리고 역사치료”, 『인문과학연구』 제 24집, 2010, p.369.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남북 평화 협력사업과 연계한 마을 재생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민북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수집되고 정리되는 과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정리

접경지역이 남한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점은 중심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다는 “접근성”의 부재, 분단체제의 요인 속 통제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경제적 “낙후성”과 “소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²⁾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소외는 주민들에게로 이어져, 도시의 저개발, 주민 이탈 현상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잠재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DMZ, 접경지역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 발전방안 연구’, ‘접경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 한 평화·생태 관광 개발’, ‘경기, 강원, 접경지역의 지리, 생태, 환경 분석’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³⁾ 2010년 이후 최근까지의 연구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DMZ 연구 동향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253편의 DMZ 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3개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마다 높은 빈도로 사용된 용어 20개를 도출한 바 있다.⁴⁾

2) 이원호와 박삼옥은 사회지리적 측면에서 형성된 소외가 주민들의 일상에서 점점 더 고착화되고 심화되는 현상을 일상, 문화적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원호·박삼옥,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이해 -소외성의 형성과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2호, 2004).

3) 김재한은 2010년까지의 DMZ 연구 실태를 시기별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향후 연구 가능한 주제들을 도출하여 후속 연구에 기여하였다(김재한, “DMZ 연구의 오해와 논제”, 『통일문제연구』 23권 2호, 2011).

4) 다양한 텍스트 분석 기법을 도입한 해당 연구는 기존 연구 동향을 시각화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점과 동시에,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 소재 등을 통계적으로 제시하여 DMZ 연구분야의 네트워크상의 공백을 상상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박선일·배선학,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용한 DMZ 연구 동향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4, No3, 2018).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인문지리학, 사회지리학적 관점으로 진행된 연구는 2018년 현재 시론의 단계를 막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문지리, 사회지리적 관점은 연구자들에게 공간과 주민이 맺고 있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철학적·사회과학적 사유를 통해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마을과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⁵⁾ 박민철의 인식은 민북마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단이 그 자체의 의미에서 경계짓기라는 필연적인 원리를 전제한다고 할 때, 경계짓기로서 분단체제는 ‘인공적이고 새로운’ 공간 형성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공간 형성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DMZ’, ‘민간 인통제보호구역’, ‘접경지역’이라는 거대한 공간이다.”⁶⁾

위와 같은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분단체제로 인한 지역·주민 정체성 연구에 직접 도입하려는 시도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강원지역에서 남북한 관련 구술사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김귀옥⁷⁾과 김일한⁸⁾ 외에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귀옥은 강원도 지역에 정착한 ‘탈남민’ 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이념적 편견을 깨뜨리고 분단체제가 실제 작동하고 있음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민북마을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일한은 본 연구에서 수행하려는 민통선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술조사를 앞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군사충돌사례 연구로 특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인문·사회지리적 연구라 할 수는 없다.

한편, 본 연구가 구술생애사(이하 구술사)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먼저, 구술사는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토대로 역사를 서술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공식적인 역사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 구술자가 증언하는 기억은 개인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구술자는 하층민, 비특권 집단 그

5) 인문·사회지리학적 접근의 단초를 제공한 연구자로는 박민철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공간과 일상생활, 분단체제를 연계하여 접경지역에 존재하는 분단체제의 장소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6) 박민철, “분단체제의 공간성: DMZ와 접경지역의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Vol28, No3, 2017, p.131.

7) 김귀옥,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 속초 ‘아비마을’과 김제 ‘용지농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8) 김일한A, “위험한 평화와 공존하기: 강원도 민통선 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평화학연구』 17권 1호, 2016 ; 김일한B, “갈린 평화와 조강의 공존: 경기도 민통선 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평화학연구』 18권 3호, 2017.

리고 패배자이자 실제 역사를 만들고 사회를 작동시켰던 절대적 다수이다. 바로 이 지점, 소수 기득권 중심의 공식적 승자의 담론이 아닌, 사회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대중의 기억과 목소리라는 점에서 “과거에 대한 좀 더 사실적이고 공정한 재구성이 가능하다.”⁹⁾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술사는 지역의 무형의 자원을 이해하고 장소의 느낌을 전달하는데 유용하며 지역에 형성된 정체성과 함께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것은 “역사를 지역사회 안으로” 데려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며,¹⁰⁾ ‘지역적 문화코드’, 다시 말해서 “[지역마다] 특유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¹¹⁾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국내외에서도 구술사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한 가지 예로, 지자체마다 구술을 수집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광명시의 경우 ‘개발’과 ‘개발 제한’의 모순 속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사를 발굴하는데 지역주민의 구술을 활용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를 통해 ‘구술로 보는 서울역사’라는 도서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7권을 발행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기억을 수집하고 기록하여 미시사적 스토리를 발굴하고 있다.¹²⁾

해외도시의 경우 마르세이유는 도시의 기억을 존중하고 이민자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여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구술에 주목하여 기억을 문화유산화 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의 통합을 시도하였다.¹³⁾ 또 이와 유사한 사례로 망명자가 많았던 영국의 레스터에서는 각 인종 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레스터로의 이주(Moving Here)’라는 구술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¹⁴⁾ 이처럼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연구차원에서 지역연구에 대한 구술사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9)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서울: 아르케, 2010, p.41.

10) 윤택림, 위의 책, p.52.

11) 윤택림, 위의 책, p.59.

12) 김정웅·유동환, “‘지역주민의 구술의 콘텐츠화’를 위한 구술수집기획 방안연구”, 『문화콘텐츠연구』 제10호, 2017, p.144.

13) 최향란, “마르세이유 경제 현실과 구술사를 통한 사회통합 시도”, 『역사학연구』 51호, 호남사학회, 2013, pp.95~106.

14) 김정웅, “구술 스토리텔링 기반의 마을만들기 활성화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22~24.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표적 질문에 의한 자료의 획득을 지양하고 구술자의 전체 생애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생애사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술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체험한 객관적인 과거 사실을 단순 모사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이 이루어지는 당시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내용과 주제를 선택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재구성한다”¹⁵⁾는 Fischer의 논의를 상기해볼 때, 생애사 접근을 토대로 한 ‘서사방법론’의 채용¹⁶⁾은 본 연구가 ‘사실, 기록’으로서의 구술자의 증언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연구라기보다는, 그들이 그러한 기억을 말하게 만든 지역과 사회에 대한 맥락적 해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뜻한다.

15)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권 3호, 2005, p.134.

16) 서사방법론에 대한 연구로는 위에 인용한 이희영을 참고할 것.

Ⅲ. 민북 마을의 이해

1. DMZ와 민북마을의 역사

민북마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MDL, DMZ, CCZ 등의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중단되면서 남북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이 만들어졌다. 흔히 휴전선이라고 부르는 남북 군사분계선은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1,292개의 말뚝을 박고, 이 말뚝을 이어 240km에 달하는 가상의 선을 이은 것이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2km를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로 만들어 유엔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게 하여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게 하였다. 그리고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까지는 군사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민간인출입통제지역(CCZ:Civilian Contraol Zone), 이하 민통선’을 두었다.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 육군 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되었는데, 휴전이후 민간인의 귀농을 규제하는 귀농선을 설정하여 민간인을 출입금지 시킨 것에서 발생하였다. 민북마을은 이처럼 민간인출입통제지역 북쪽에 존재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혹은 민통선마을이라고 불리고도 있다.

최초의 민북마을은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허술한 출입제한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휴전협정이 진행되던 판문점 주변에 폭격과 교전이 중단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1953년 휴전이 협정되면서 그곳에 자리 잡은 마을이 인정된 것이다. 이때 인정된 마을이 남쪽 대성동과 북쪽의 기정동 마을이다.¹⁷⁾ 또한 귀농선이 만들어지면서

17) 전상인·이종겸, 「DMZ국가촌락 사업 연구-철원군 ‘통일촌’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52권 제4호, 대

61개의 자연촌락이 민통선 마을로 구획되면서 민북마을이 확대되었다.¹⁸⁾

1958년 6월부터 휴전선 방어 임무를 하게 된 한국군이 군 작전과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면서 귀농선은 민간인 통제선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국토이용의 제고와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하기 위해 1959년부터 기존의 민북마을을 포함한 99개의 자립안정촌을 건설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실향민촌인 해마루촌이 입주하면서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의 9개 시·군, 27개 읍·면에 걸쳐 총 123개 마을이 조성되었다. 현재에는 민통선이 조정되면서 3개 광역시도, 6개 시·군, 13개 읍·면에 54개의 마을이 남아 있다.

이들 마을의 형태는 동일하지 않고 설립 유형에 따라 자립안정촌과 전략촌(재건촌, 통일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립안정촌은 107개로 민북마을의 87%를 차지하는데, 군사 작전 및 보안 통제가 비교적 적은 곳으로 원주민과 출입경작자를 포함한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쟁 직후에 조성되어 출입 통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마을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자연적 마을이다.

재건촌과 통일촌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목적에 따라 마을을 만든 전략촌이다. 재건촌은 1964년 민통선 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된 이후, 북한의 선전마을에 대응하고 지역별 집단대공방위체제를 강화하며 유희농지를 개간하여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 1968년부터 12개의 마을을 건설한 것이다. 그리고 재건촌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여 1973년 철원군 유곡리와 파주군 백연리에 2개의 통일촌이 만들어졌다. 1998년도에 건설된 해마루촌은 실향민의 재정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표 Ⅲ-1> 행정구역별 민통선 마을 분포

	자립 안정촌	전략촌		비무장 지대촌	실향민촌	전체	2013현재
		재건촌	통일촌				
강원	20	9	1	-	-	30	11
경기	52	3	1	1	1	58	18
인천	35	-	-	-	-	35	26
계	107	12	2	1	1	123	54

출처 : 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p.27.

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7, p.30.

18) 김일한A, 앞의 논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6. p.67.

<표 Ⅲ-2> 유형별 민통선 마을

		건설년도	건설된 촌락 수	현재(2013)년 촌락 수
대성동 마을		1953	1	1
자립안정촌		1954~1986	107	45
국가촌 락	재건촌	1968~1973	12	5
	통일촌	1973	2	2
해마루촌		1998	1	1

출처 : 전상인·이종겸, 「DMZ 국가촌락사업 연구-철원군'통일촌'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52권 제4호,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2017, p.31.

민북마을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민통선이 북상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축소되었다. 특히 1997년과 2007년 민통선이 북상하면서 상당히 많은 마을이 해제되었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까다롭던 마을 출입절차가 완화되었다.

<표 Ⅲ-3> 미해제 민통선 마을현황(2016년 현재)

지역			마을명	마을유형	조성시기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1리	자립안정촌	1956.4.25
			현2리	자립안정촌	1956.4.25
			현3리	자립안정촌	1956.4.25
			오유1리	자립안정촌	1956.4.25
			오유2리	재건촌	1971(상세미상)
			만대리	재건촌	1971(상세미상)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재건촌	1971.12.10
		근남면	마현1리	자립안정촌	1960.4.7
			마현2리	재건촌	1968.8.30
		동송읍	이길리	재건촌	1974.10.23(정연리 분구)
		근북면	유곡리	통일촌	1973.7.20

지역			마을명	마을유형	조성시기
경기도	연천군	증면	횡산리	자립안정촌	1986.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실행민촌	2003.4.
		군내면	백연리	통일촌	1973.7.20
			조산리	비무장지대촌	1953.8.3(자유의 마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용강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조강1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조강2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개곡1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개곡2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하성면	시암1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시암2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마조1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마조2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마근포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가금1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가금2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양태2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북성1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북성2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교산1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교산2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인화1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인화2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송해면	당산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교동면 (교동도)	봉소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고구1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지역			마을명	마을유형	조성시기
			고구2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인사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지석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무학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서한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동산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대룡1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대룡2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읍내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상용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삼선1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삼선2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난정1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난정2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양갑리	자립안정촌	1954.2.3 자연촌락

출처: 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2012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2. 철원 유곡리와 양구 해안면의 민북마을

2.1 철원 유곡리

철원은 한반도 중부에 위치하며 평야지대가 있고 강원과 경기를 연결해주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후삼국 시대 궁예가 세운 태봉국이 한 때 수도로 삼았다. 조선시대에는 강원도 서북부의 중심지였고 일제강점기에는 경원선과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 성장하였다. 특히 철원은 한국 최초의 전기철도인 금강산선이 출발하던 곳으로 1931년 금강산철도가 개통 완료된 후 철원에서 금강산역까지 하루 8회 운행하면서 금강산으로 가는 관광객이 집결하는 장소가 되었다. 당시 철원에서 내금강까지 116.6km 거리를 가는데 4시간 40분이 걸렸다. 기차표가 비쌌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이 탈 수 있었고 철원역 주변은 이들로 인해 번창할 수 있었다. 철원읍은 인구 2만 명의 중소도시로 성장하였고, 철원역 주변에는 철원극장과 철원백화점을 비롯하여 일본식 건물과 서양식 건물, 식당과 여관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변화하였다.

이현이 쓴 소설 《1945, 철원》에는 일제강점기 철원역을 중심으로 한 변화했던 철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집을 나와 골목 끝에 이르면 철원극장이고, 극장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철원군청을 지나 종연방적 공장과 전기회사, 남초등학교 그리고 얼음창고와 금융조합을 지나 철원역이었다. 독립병원 모퉁이를 돌아 왼편으로 가면 철원경찰서와 우시장, 우편국과 신사 그리고 감리교회와 목욕탕이 있었다. 그렇게 굽적굽적한 건물들 사이로 요릿집이며 여관이며 이발소며 면옥집이며.... 경성에 있는 화신백화점이나 미쓰코시백화점만은 못하지만 온갖 물건을 갖춘 철원백화점도 있었다. 대부분의 건물은 단층 혹은 2층짜리 일본식 목조건물이었고, 웅장한 외관을 과시하는 서양식 석조건물도 꽤 많았다. 그 변화한 거리의 심장부에 자리잡은 철원역은 남북을 오가는 철로를 양 날개처럼 펼치고 있었다. 러시아로 혹은 중국으로, 이름을 잃어버린 조선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철원역을 거쳐 갔다. 무언가에 쫓겨 떠나는 사람들 혹은 무언가를 꿈꾸며 떠나는 사람들이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일제강점기 때까지 번창했던 철원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미소의 38선이 확정되면서 철원군은 전 지역이 소련군정 관할로 들어가게 되었고, 원산이 북강원도의 도청소재지가 되기 전까지는 북강원도의 도청소재지로 철원 노동당

사가 건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철원은 교통의 중심지이나 핵심적 병참로가 되어 남북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철원지역은 초토화 되었고 철원읍은 폐허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남한의 영토로 귀속되었지만, 한동안 철원의 대부분은 귀농선에 포함되어 민간인의 접근이 허가되지 않은 폐허의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한국군이 휴전선 방어임무를 하게 된 이후 휴전선의 황무지와 유희지를 개척하고 대북선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북마을이 만들어지면서 철원의 역사가 다시 회생하기 시작했다.

1959년 철원읍 월하리, 1960년 관전리, 마현 1리 등 조금씩 자립안정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1968년에는 대마 1,2리, 마현 2리 등 재건촌이, 1973년에는 유곡리가 통일촌으로 만들어졌다.

유곡리는 1973년 재건촌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전략촌인 통일촌으로 건설되었다. 당시 통일촌은 1968년부터 등장한 재건촌이 주거공간이 좁고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며, 촌락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면 경계가 불명확한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또한 식량증산을 위한 유희경지 활용, 전선방위, 대북 선전기능의 강화 등 다양한 건설 이유가 덧붙여져서 정부가 가구당 5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1973년 5월 박정희대통령이 전략촌 건설을 지시한 이후 약 석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유곡리의 60세대는 1973년 7월 30일 파주 백연리 통일촌과 함께 입주하면서 마을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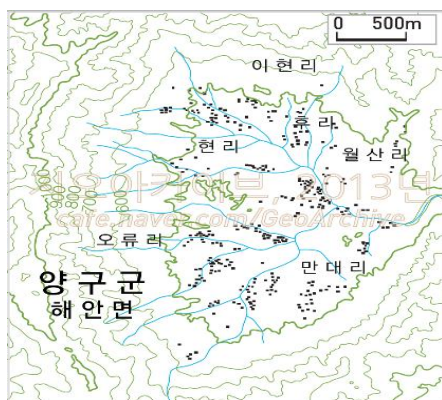
<그림 Ⅲ-1> 철원군 유곡리 위치

2.2 양구 해안면

해안면이 소속된 양구는 고구려 이후 춘천이나 화천군에 예속되거나 독립 군·면·읍을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 양구군 전체가 소련군정 관할로 들어갔다가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구가 되었다. 이때 해안면은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으로 1954년 11월 인제군에 이관되었다가 1973년 7월 양구군 동면으로 편입되었고, 1983년 해안면으로 복원되었다.

해안면은 분지 하나가 1개 면을 이루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며, 한국전쟁 시 종군기자가 지형이 편치볼을 닮았다고 해서 편치볼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1년 6월 도솔산전투가 개시되기 전까지 북한 소속이었으나 10월 미군이 해안면을 점령하면서 남한 소속이 되었다. 그러나 치열한 전투로 인해 일제시대까지 5,000여명이었던 해안면 인구는 소개되어 1956년까지 군인과 소수인을 제외하고 면 전체 인구가 없는 지역이 되기도 하였다. 1956년부터 일부 세대가 돌아와 마을이 재건되었지만 아직도 월산리와 이현리, 후리에는 거주하는 세대가 없다.

한국전쟁 이후 공백이 된 해안면에 1954년 출입영농민 10여명이 봄에 들어와 가을 추수할 때까지 천막에 거주하게 되었고, 1956년 4월 입주영농이 허용되면서 160세대 965명이 이주하면서 마을이 재건되었다. 입주 당시 육군 제 6사단이 건설 지원을 나와 주택 80채와 학교 1개교, 공공시설 4채를 건설하였다. 양구에 있는 민북마을은 강원도 최초의 민북마을이며 자립안정촌 4개와 재건촌 2개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Ⅲ-2> 양구군 해안면 행정구역도



<그림 Ⅲ-3> 양구군 해안면 편치볼 지형

Ⅳ. 인터뷰 대상자와 주요 증언내용

1. 철원 유곡리

1.1 면접 대상자

<표 Ⅳ-1> 철원 유곡리 면접 대상자

연번	성명	출생연도	연령	성별	비고
1	안○○	1941년	77세	남	전 이장, 마을 조성 당시 입주(1973년)
2	김○○	1947년	71세	여	마을 조성당시 입주(1973년) 남편은 사망, 남편이 군출신으로 제대신청하고 바로 입주, 마을 조성 초기 이장 역임
3	장○○	1941년	77세	여	안○○의 아내
4	김○○	1951년	67세	여	현 부녀회장/남편이 원주민이라 마을 조성이후 입주(1976년)

1.2 동국대학교 DMZ연구센터에서 협조 받은 구술 대상자

<표 IV-2> 동국대 DMZ연구센터 면접 대상자

연번	성명	출생연도	연령	성별	비고
1	이○○	1940년	74세 (2015년 당시)	남	전 초대 군의원, 3사단에서 마을 조성업무 담당 / 전역 후 마을 입주

1.3 면접 요약

유곡리는 아직 민통선 경계초소가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이 불편하고 노령 인구가 중심이 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은 1983년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소유권 문제발생 이후 지금까지 토지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하였다. 장교들이 주축이 되어 입주했던 파주 통일촌에 비해 일반 병사들과 민간인만 입주했던 자신의 마을이 힘도 약하고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문제를 비롯해서 마을 발전에 피해를 입었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마을의 일상 변화가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소위 ‘군인 대통령’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부대가 마을의 일상을 통제하던 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마을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냥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 군대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마을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 마을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을에 거주하는 2세대가 없고 70세 이상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 특용작물의 재배나 큰 규모의 농사를 짓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았다.

1.4 기타

인터뷰 대상자 중 남편이 군에서 제대하며 함께 마을에 입주한 김○○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감정을 추후 인터뷰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대상자 2번인 김○○은 입주 초기 자신의 집에 철원군청 공무원들이 머무르며 토지 감정을 해서 분배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군 장교출신인 남편은 입주 초기 마을 이장을 역임하며 주도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둔부대와와의 관계에서 군 출신답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구술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마을 입주민 중 군 출신 주민과 일반 입주민 사이에 마을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조사 선정 배경

유곡리는 전형적으로 국가가 만든 마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황에서 민간인의 출입도 통제하던 지역에 북한과의 체제경쟁의 차원에서 마을을 조성한 지역이었다. 지역의 다른 민북마을은 전쟁 전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지역 혹은 영농을 하던 지역에 형성되어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입주하였다. 하지만 유곡리는 초기 형성과정에 철저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노동력이 보장된 사람으로 뽑았고 국가의 지원을 통해 집을 짓고 마을을 조성한 지역이었다. 이런 차이가 유곡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이다. 철저하게 국가의 의도에 따라 형성된 마을이 지금은 최고령의 곧 사라질 마을로 변했다는 역설이 그 이유이다.

2. 양구 해안면

2.1 면접 대상자

<표 IV-3> 양구 해안면 면접 대상자

연번	성명	출생연도	연령	성별	비고
1	김○○	1960년	58세	남	입주 2세대 / 입주 당시 8세
2	김○○	1968	51	여	김○○의 사촌 제수/결혼한 이후 이주(1987년)
3	이○○	1969	50	남	전 이장, 전 양구군의회의원 해안면 거주 원주민(11대)
4	조○○	1941	77	남	인제군 용대리 출신, 군 제대 후 마을 조성 당 시 입주 31살(1972년)

2.2 면접 요약

해안면의 면접조사는 이주 1세대와 이주 2세대를 모두 조사할 수 있었다. 해안면은 상대적으로 큰 마을로 현재는 마을 입구에 군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마을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근처에 통일전망대를 관할하는 소규모 부대를 제외하고 큰 부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대와 관련하여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의 2세대들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이주한 주민들로 현재 마을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면을 대표하여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고 외국인 농업노동자를 활용하여 시래기, 인삼과 같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을 운영에 개입하고 있었다. 특히 요즘은 고향을 떠났던 3세대들도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추세로 이와 관련하여 면접대상자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면접 대상자들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마을의 관계에 대해 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마을입구에 있었던 군 검문소가 철수하게 된 것은 남북관계가 좋아진 이후라고 증언하였으며 마을의 발전, 군 검문소 철수, 군대와의 관계를 담당하였으며 지방의원도 역임하였던 마을 엘리트 모 인사의 역할도 증언하였다. 이 인물의 경우 현재 고령으로 인해 인터뷰가 어려운 상황이다.

마을 1세대 이주민의 경우 군대에서 하사관으로 제대한 후 마을 입주 공고를 보고 이주한 인물로 초기 마을 개척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증언하였다. 1970년대 이웅평의 월남,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등의 시기에 군과 함께 일주일씩 산에 올라가 경계 작전을 했던 사례와 마을 조성 초기 어려움 등에 대해 증언하였다.

2.3 마을 선정 배경

해안면은 청동기 시대부터 인간이 정주했던 지역으로¹⁹⁾ 오랜 기간 동안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지역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을 거치며 약 10%의 원주민과 이주민으로 구성된 전략촌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해안면은 민북마을에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마을의 현재와 관련하여 마을에 연고가 없는 귀농인구가 입주하여 시래기, 인삼, 더덕 및 고소득 농작물 등의 재배를 통해 민북마을의 자생력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이런 젊은 귀농인구의 존재는 마을의 미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강원도 - 지자체 - 마을주민의 연계를 통한 마을 재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안면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19) 홍금수, “역사지리의 파국적 단절과 미완의 회복”,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Vol.21, No.3, 2009, p.105.

V. 구술로 본 민북마을의 성립과 오늘

1. 유곡리의 성립과 발전

1.1 입주와 마을 형성

1.1.1 마을입주의 기억

유곡리는 국가촌락으로 형성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가촌락은 국가에 의해 입지가 결정되고 거주민이 모집동원 혹은 선별될 뿐 아니라 주택구조나 주거양식이 표준화되고 일상생활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마을을 의미한다.²⁰⁾ 유곡리는 전형적인 국가촌락으로 ‘통일촌’이라 불린다. 마을에 입주할 주민을 모으기 위해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세대 당 논 3,300평, 밭 3,200평의 경작권과 새 주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당시로는 쉽지 않았던 전기공급도 이뤄졌다. 2가구 당 1대의 경운기, 소 등을 제공하였고 전화도 설치하여 주었다. 따라서 당시 입주 경쟁은 치열했으며 다양한 조건을 걸어 입주자들을 선별하였다. 당시 민간인이었던 초기 입주민 안00씨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구술자 : 우리 마을은 73년도에 파주통일촌하고 철원통일촌 한날 한시에 입주가 됐어요. 73년도에 입주가 돼가지고 파주통일촌은 말하자면 서울에 뭐 별자리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운동

20) 이종겸·전상인, “DMZ지역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연구”, 『환경논총』 57호, pp.56~57.

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는 빨리 별자리 됐고. 이 철원에는 그때 당시 이장들하고 개발위원들 이렇게 해서 서울 가서 교섭을 해가지고 뭐 좀 마을을 이루어볼까 하고 하다가 뭐 아는 사람이 있어, 뭐 누구 말처럼 밭이 넓지 않으니깐 촌사람들이라. 서울에서 며칠 자고 먹다 보니까 돈 거둬가지고 간 거 다 털어 먹으니깐 도로 내려와서 시시부시하게 다 무산되고. 뭐 줄이 없으니깐. 그때 당시에는 집 지어주고, 땅 6,500평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1인당 6,500평을 가지고서는 개간을 해가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했죠. 그때 당시는 73년도에는 6개 부서에서 한전에서 전기 들어오고, 양수시설 하고, 집 지어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줄 알고들 희망해서 들어가서, 군인들 또 30세대가 들어가서 옷 벗으면서, 3사단 군인들. 옷 벗으면서 3사단에서 이제 거기 정착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는 아주 포부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대통령 바뀌어, 장관들 바뀌어,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는 거니까 올 때까지도 땅이 내 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45년 그렇게 흘러갔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 출신으로 마을에 입주한 이00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²¹⁾

구술자 : 국가시책으로 내 우선 지원해가지고 8개 중앙부처가 보조를 하고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범지역으로 조사 대상에서 2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먼저 지었어요.

면담자 : 네.

구술자 : 72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73년도에 파주 통일촌하고 여기 철원 통일촌이에요. 강원도 그래서 통일촌이라는게 제1마을, 제2마을 이렇게 된 거지요. 그렇게 시범마을을 지어놓고 나머지 마을을 할라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그때 박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니까 국가시책으로 접경지역에 전시적 효과 이런 것을 국방 이런 것을 미화시켜서 마을을 조성한 거거든요.

면담자 : 네.

구술자 : 그래 마음대로도 못하고, 정부에서 보기 좋은데다가 재들하고 겨루기 좋은데다 2군데 내 가지고 시험적으로 지어놓고,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망하니까 이게 다 흐지부지 한 거죠. 최초 계획이 저거였어요.

면담자 : 네

(중략).....

면담자 : 그럼 선생님이 전부 이걸 조직한 거 대로 진행을.....

구술자 : 그때는 3사단 대표로다가 시범장교로다가 내무부도 갔고 국방부다 갔고 다 가서 회의하고 참

21) 동국대학교 DMZ연구센터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연구비지원을 받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현재 연구완료 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공개를 위한 서비스 준비 중에 있다.

석도 다했던 거지요.

면담자 : 아....

구술자 :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기 집 짓는데 까지 입주하는데 까지 집 사는데 까지 다 관련 있는 거.

면담자 : 그렇지요.

2015년 3월 14일 동국대학교 DMZ연구센터와 인터뷰한 유곡리의 이00씨는 군 출신으로 중위로 제대하였고 3사단에서 민사업무를 담당하며 철원 통일촌 조성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조건이 좋아 보여서 제대하고 마을에 입주하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군대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후 추가로 비슷한 형태의 국가 촌락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원 유곡리의 경우 초기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한다.

구술자 : 처음에 계획이 좋았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안돼서 그렇지. 파주는 경기도 재정이 좋으니까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처음에 지었던 이 시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지었어요. 파주는 아주 계획대로 80세대가 들어가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때 정부에서 해 놓고 그대로예요. 변동사항도 없고

(중략)

면담자 : 그렇죠? 네. 그 처음에 입주하실 때 몇 가구가 입주하신거예요?

구술자 : 처음에 계획은 여기 80세대를 계획했어요. 정부에서 여기서 80세대, 파주도 80세대 계획을 했는데 농토면적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20세대를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69세대가 입주된 거지요.

이00씨의 증언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계획에서부터 농지확보 문제로 뒤튼린 계획은 마을에 본격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역시 문제는 농지 문제였다. 안00씨의 증언이다.

면담자1 : 60세대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 60세대잖아요. 혹시 8-90년대에 다시 나간 세대도 있나요? 힘들어서?

구술자 : 즉시 나간 사람이 있죠, 군인들. 군인들이 들어왔다가.

면담자1 : 한 몇 세대 정도?

구술자 : 한, 네 집 정도 그때 즉시 나갔어요.

면담자1 : 힘들어서?

면담자2 : 아, 이게 약속하고 다르게 땅을 다 내가 개간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구술자 : 그렇지, 보니까 군인 제대할 때하고 말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직접 느껴보고 자리 지키고 하다 보니까 나간 거죠.

안00씨의 증언에 따르면 입주 초기에 마을에 입주했던 군인출신들 4명은 6,600평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처음 약속과 달리 개간을 자신이 해야 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3사단 출신의 남편을 따라 마을에 입주한 여성 김00 역시 입주 당시 정부의 약속과 다른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구술자 : 저기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계속 교육을 시켰잖아요,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시범마을을 지어준 거 아녜요. 통일촌 마을 지었잖아. 그래가지고 군청에서 수시로 와가지고 교육해서 이렇게 논주고, 밭주고 하는데 못살 수가 있느냐. 못사는 사람은 차라리 어디가든 못사니까 열심히 해서 살아라고 순 교육하고. 콩도 여기다가 처음에 그러니까 73년도든가, 72년도에 여기다가 다 그거를 콩을 다 심었어요. 남자들이 와서. 여자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저기 수색중대, 여기 그냥 다 콩을 심어가지고 우리 1년, 그래가지고 그때 73년도? 8월 몇 일날인가 입주했지? 그때 와서 1년 동안 농사를 못짓고 그냥 먹고 사는 거야.

면담자2 : 아, 그 전에 지었던 콩으로?

구술자 : 콩 그때 심은 거지. 봄에 콩을 심어놓고. 1년 동안 아무 것도 그냥 돈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면담자1 : 돈 까먹으면서?

구술자 : 까먹으면서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밭주고, 좋은 사람은 좋은데 나쁜 사람은 막 갈때나무 뿌리, 버드나무 뿌리 그거 두 부부가 맨날 캐가지고 농사 짓고.

면담자1 : 그거 먹으면서?

구술자 : 아니,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캐내면서.

면담자1 : 아, 개간을 해야 되니까?

구술자 : 개간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림 V-1> 유곡리 입구 표지석(출처: 연구진)

김00의 증언에 따르면 입주계획이 완성된 이후 남성들이 먼저 마을에 들어와서 입주 이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콩을 심었지만 막상 입주한 이후에도 가지고 있던 돈을 쓰면서 살았다고 한다. 땅을 개간해야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받은 퇴직금을 까먹으면서 살았다고 한다. 입주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토지문제는 이후에 또 다시 문제가 된다. 애초에 계획보다 토지가 적게 주어진 것도 유곡리 주민들이 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지만 국가시책이라는 이름하에 급하게 준비해서 졸속적으로 진행된 것도 이후 토지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이야기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1.2 입주권을 따기 위한 치열했던 경쟁

안00씨의 증언과 같이 입주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홍보가 진행되었기 때문

에 입주경쟁이 치열하였다고 한다. 당시 유곡리 입주를 둘러싼 경쟁률은 수십 대 일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발된 주민들은 입주 전 한 달 동안 정신교육과 영농교육을 받았으며 1호집부터 60호집까지 ‘통일’이라는 글자 모양으로 이뤄진 연립주택에서 생활을 하였다.²²⁾ 우선 주변 마을에 거주하던 민간인이었던 안00씨의 입주경쟁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면담자1 : 선생님 고향은 이쪽 철원이셨나요? 아니면 어디?

구술자 : 우리는 철원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면담자1 : 아, 원래 고향은 철원이셨고요.

구술자 : 예, 거기 들어갈 때는 비율이 세 가지고, 민간인으로다가 30세대, 군인들 30세대, 60세대가 입주했어요.

(중략)

면담자1 : 그러면 그때 가족을, 부인하고 아이들 같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구술자 : 예, 그때 당시는 5인 가족 미만. 처음 들어갈 때는. 그리고 노동력이 2인 이상 노동력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농사꾼은 못 들어가는 거지.

면담자2 : 그때는 젊고, 학력도 좀 있는 분들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구술자 : 학력은 뭐 안봤어. 학력은 안봤고 군대 3사단 제대하면서 옷 벗은 사람은 땅을 준다 해가지고 자리 잡을까 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후회했지.

면담자1 : 선생님 이런 소식, 이렇게 만들어진단, 모집한다는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동네에서 그냥 이웃사람들이랑 통해서 아니면 뭐 어디 뉴스나 방송 이런 걸로 보신 건가요?

면담자2 : 신문 같은 데 공고가 난 건가요?

구술자 : 공고 났죠.

면담자2 : 아, 그거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구술자 : 예, 공고 내가지고 거기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비율이 엄청 세 가지고 거기 합격 되기가 힘들었지, 사실은.

안00씨는 철원군내 다른 지역 출신으로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의 주특기는 전기 작업이었는데 관련 직장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설업자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한다. 안

22) 이희연·김무한, “통일촌 유곡리 일상화 장소성 발굴과 유곡리 브랜딩”, 『환경논총』 57호, 2016. p.64.

00씨가 가지고 있던 전기 기술과 같은 것이 마을 입주에 영향을 주었냐는 질문에 안00은 의외의 답변을 하였다.

구술자 : 아니 뭐 그거는 유리한 게 아니고. 그래도 그때 당시 또 떨어질까봐. 군부대 친밀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보안반에. 그래가지고 거기 좀 들어갔는데 협조 좀 해달라고. 다 알지. 그래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 합격됐어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민간으로다가 난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처음 번에는 포부들이 다 좋아가지고 들어가는데 뒤끝을 마무리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정부에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우리까지도 아직 살만할 텐데. 그냥 몰라라 하고 집주고 땅 준다니까 다들 좋아서 들어갔지.

오히려 자신이 입주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은 군 보안대에 근무하던 지인의 도움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런 사실은 초기 마을의 운영과 설립에 군대의 역할이 컸을 보여주는데, 군 출신인 이00씨의 증언 역시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면담자 : 60세대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구술자 : 그때 계획이 군에서 연고권 있거나, 연고권 있고 예비군 대상자 편성 대상자를 50% 넣고 현역부대에서 현역 하사관, 장교, 또 지역에서 제대한 장교, 하사관 이렇게 해서 50%를, 사단장이 50%를 받을 넣고 군에서 반을 추천하게 했어요. 선발하게 됐어요.

당시 3사단에서 마을 조성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이00의 증언에서도 군대에서 선발계획을 작성하고 선발과정을 전담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초기 마을의 조성은 철저하게 박정희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국정과제를 군대에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관련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하였고 마을 조성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마을 입주민들이 항의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

앞서 안00씨의 증언에 따르면 마을 입주를 위한 조건이 존재하였다. 5인 미만 가족, 2인 이상의 노동력이 그 조건이었다.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 이00씨의 증언을 좀 더 들어보자.

구술자 : 그렇게 해서 60세대가 형성이 된 거지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면담자 : 아, 그러면 30세대씩?

구술자 : 네. 그때 반드시 예비군 대상자였고, 최소한도 2, 3년 생활능력이 되는 재정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현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제대하니까 퇴직금이 있으니까 되지요. 민간인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면담자 : 네.

구술자 : 예비군 편성대도 물론 되지만 민간인도 이 식구 제한을 했어요. 현역이나 민간인이나 1개 가정에 노동력 2명이상, 내가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면담자 : 그렇지요.

구술자 : 그리고 자녀가 셋, 자녀 등 부모가 있는 전부 합해서 다섯 식구 미만만.

면담자 : 아.

구술자 : 제한을 해 버린 거지요.

면담자 : 왜 제한을 했을까요?

구술자 : 생활능력이 있고, 예비군 편성 대상자이고 그게 젊은 사람 추천거지요. 능력있는 사람만.

면담자 : 가족이 또 너무 많으면 문제다...

구술자 : 네. 농토도 있고 원래는...

이00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국가는 통일촌을 건설하며 젊고 노동력이 확보된 가족들을 모집해서 애초에 계획대로라면 15,000평을 주고 자립적이고 규모 있는 농업 즉, 대농을 형성해서 북한에 “멋진 마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²³⁾고 싶었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자급적이고 규모 있는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바로 예비군에 편성된 젊으면서 가족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이중 특히 군인들을 제대시켜 군이 마을에 입주시킨 이유도 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군대의 통제를 용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1.1.3. 초기 마을의 운영

초기 마을의 형성과정에 군대의 역할이 컸던 만큼 마을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초기 마을에는 점호가 있었다. 점호는 군대에서 인원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아침 저녁으로 부대원이 다 부대 안에 있는지 확인 것이다. 당시 유곡리에는 각 세대별로 가

23) 이00 구술녹취록, 동국대학교 DMZ연구센터, p.14.

족 구성원이 다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외부에서 친척이나 지인이 와 있다면 왜 와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점호를 매일 저녁에 시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안00의 증언을 살펴보자.

면담자1 :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사실은 통일촌마을들이 군사조직처럼 훈련도 하고 했다고 옛날에 마을에 계신 남자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나요?

구술자 : 처음 번에는 들어가서 그랬죠. 처음 번에는 점호도 취했어요. (웃음)

면담자2 : 그러면 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술자 : 그럼, 군인들이 나오지.

면담자1 : 인원 다 있는지 점호하러?

구술자 : 예, 군인들이 문 열어보고 말하자면 가족들 확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있으면 그때는 뭐 때문에 있냐고 문초를 받고 그랬죠. 처음 번에는 그랬어요, 살벌했어요.

면담자1 : 그런 게 사라진 건 언제쯤?

구술자 : 그게 사라진 건 한 30년 정도 됐겠네요.

면담자1 : 2000년대 돼서?

면담자2 : 그러면 90년대까지도 그렇게 점호도 하고 이러셨어요?

구술자 : 아, 그때는 안했어요 그래도. 초장에만 그래도 한 3년 동안 그저 그 정도 하고, 73년도에 들어가서 2-3년 동안.

안00의 증언에 따르면 점호는 입주 초기 2~3년간 진행되었다고 한다. 안00은 당시의 점호에 대해 “살벌했다”, “문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당시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출신의 남편을 따라 마을에 들어온 김00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면담자1 : 그러면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죠? 옛날에는 점호도 했다고 하시던데? 인원점검 다 하고 했다고, 집집마다. 인원 다 있는지.

구술자 : 그렇게는 안하고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잔다든지 그러면 조금 심했지.

김00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꺼린다.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잔다든지 그러면 조금 심했다고 표현하며 당시 군인들의 점호가 마을 주민들을 힘들게 했지

만 외부인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그가 군 출신인 남편과 함께 마을에 들어왔다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그녀의 남편은 군 출신으로 마을 조성 초기 군청직원들이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땅을 배분하는 작업을 했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초기 마을의 이장을 맡아서 마을 운영에 관여했었다. 마을의 입주 초기부터 이장 선출 등 주요한 일은 군 출신 주민들이 도맡다시피 했는데 이로 인해 일반 예비역 출신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등 내홍을 겪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²⁴⁾

1.1.4. 초기 마을의 문화

초기 마을에서는 주민들과 간첩을 분리하기 위해 빨간 조끼와 빨간 모자를 착용하고 일해야 했었다. 또 월북 등의 돌발행동에 대비하여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되었고 술을 담그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각자의 집을 부를 때 “00네 집”, “진주댁”과 같은 자식의 이름이나 고향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00호집으로 호칭한다. 이는 유곡리 마을 초기 형성 당시에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 1호에서부터 60호까지 주택 번호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 세대는 번호로 호칭되고 군에서 매일 저녁 점호를 하며 집은 북쪽에서 볼 때 통일이라는 글씨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곳의 초반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은 안00의 증언에서 나온다.

구술자 : 그냥 준거죠. 그냥 황무지 내려가지고 그냥 분배를 해줬는데, 우리는 그때 김현욱 내무부장관 할 때인데 지금 초등학교 자리 와가지고 연설할 때 하여튼 당신네들은 옷 벗고 여기서 새출발하고 참 몸을 다해서 여기서 희생하라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불하를 하든가, 땅을 차라리 이걸 난 정부에서 나눠주기만 했지, 마무리를 안지어 놓은 거야.

이후에 이야기할 마을의 토지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안00이 불만을 이야기하던 과정에 나온 입주 당시 김현욱 내무부장관의 연설이다. “새출발”과 “몸을 다해서 희생”하

24) 이종겸·전상인, 앞의 논문, 『환경논총』 57호, p.57.

라는 언급은 당시 유곡리의 문화를 보여준다. 이와 비슷한 언급은 안00의 아내 장00도 언급한다.

구술자 : 옛날에 저기 뭐고. 내무부장관 김 뭐시고?

면담자1 : 김현옥?

구술자 : 김현옥이. 죽을 때도 논두렁 베고 죽으라고 한다더라 살 때도 논두렁 베고, 글썄 말만 그렇게 하고 한 가지나 해준 게 뭐있어?

이처럼 입주 초기 마을은 강한 국가주의와 군사문화에 젖어 있었다. 입주 초기 이러한 강한 군사문화와 강한 국가주의의 영향 아래 해프닝 같은 사건도 있었다. 안00의 증언이다.

면담자1 : 그러면 이렇게 마을을 꾸며라 라고 하는 게 군대에서 더 이상 잔디 심으라는 얘기가 없어가 지고, 다 파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러면 언제쯤?

구술자 : 그거는 입주돼서 즉시.

면담자1 : 그거는 바로 심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걸 다 파내신 거. 군대에서 더 이상 관리를 안하는 게 언제인가?

구술자 : 그러니까 73년도 들어가면서 2년 동안을 잔디 심고, 마을 정비를 했었는데. 그런데 2년 넘고 그 다음에 3년째서 부터는 농촌 사람이 잔디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다 캐버리고, 마당에다 고추도 심고.

면담자1 : 그때 군대에서는 뭐라고 안했나요?

구술자 : 군대에서는 뭐.

면담자1 :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구술자 : 그때는 마을 질서가 잡혀가고 그 다음에 흘러가니까 먹고 살아야지. 잔디 갖고 먹고 살아? 그러니까 한 집까지 해서 200평 썩어야. 한 집이 가진 평수가. 그래서 지금 들어가봐도 하우스 하나 짓고 조금씩이라도 해먹는 집 있잖아. 그러니까 파도 심어 먹고 말하자면, 고추도 심어 먹고 오이도 심어 먹고 토마토도 몇 대 심어 먹고.

면담자1 : 군대가 과연 언제쯤. 원래 군대라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무섭게, 정말 이제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럴 거 같잖아요.

구술자 : 그때도 2-3년 그랬지. 완화돼서 아무 통제 안했어요.

유곡리를 대북 선전용 마을로 만들려는 군대와 대통령의 욕망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집 앞 마당에 잔디도 심고 가꾸도록 하였다. 그래야 선진 문화마을로 보이고 여유 있게 사는 것처럼 관측하는 북한군인들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정말 귀찮고 하기 싫었지만 초반에는 군인들 요구대로 잔디도 심고 가꾸고 했지만 어느 순간 캐내버리고 고추도 심고 했다고 한다. 군대의 마을 장악력이 일정 부분 떨어지게 된 계기가 입주 약 2년 지난 시점이었던 것이다.

군의 마을 장악력이 떨어지게 된 배경에는 우선 앞서 마을 입주 당시의 장밋빛 약속과 달리 배분 농지도 줄어듦과 개간도 모두 마을 주민들이 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군대의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통제의 이완은 군 출신이었던 이00의 구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면담자 :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군에서 그렇게 통제를 많이 하면 마을 주민들이 좀 반발도 하고

구술자 : 많이 했지요. 대대장하고 먹살잡고 싸우고 사단장까지 가고 경찰서까지 가고 군에서는 처벌을 못하니까 민간경찰서에 넘겨가지고 경찰서 들락날락 하는 거지요 맨날. 부당하게 요구하고 부당하게 하는 건 성질 나쁜 사람은 대들거든. 군인하고 치고 박고 하거든.

면담자 : 그리고 아니 그래도 또 고급장교이시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술자 : 저 같은 경우는 사단에 있으면서 제 사단에, 사단본부에서 근무했으니까 이 아래 여기 통제선도 내 업무 소관이었어요. 출입 영농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리 떠나서 다 아는데 당분간 제대할 쯤 되더니 안면 바꾸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소도 나오다가 불공평하게 하면 초소도 다 때려 부수고 그랬지요.

면담자 : (웃음) 선생님이?

구술자 : 그래서 경찰서도 가고 뭐 말도 못해요. 지금 같으면 못하죠. 젊은 혈기 서른 대 여섯 살 먹어가지고 했으니까.



<그림 V-2> 유곡리를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검문소(출처: 연구진)

이처럼 군인과 주먹다짐을 하거나 초소를 때려 부수거나 하는 것은 이00이 군출 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변 군부대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부당하다고 여기고 자신이 가능한 영역에서 저항을 하고 있었다. 군대에서 심으라고 강요했던 집 앞 잔디를 뽑아버렸다는 안00의 경험이 그런 변화를 보여준다.

그 결과 마을은 초기 군과 정부가 강요했던 국가주의적, 군사주의적 문화가 마을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혜택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조금씩 마을 문화는 변화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문화는 여전히 주변 부대와의 강한 연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00의 증언에도 나오지만 외부로의 출입문제가 군부대의 통제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1.1.5 박정희의 사망

유곡리 마을 조성작업의 시작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서 시작하였다. 1972년 5월 24일 적십자 전방사무소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먼저 개발한 재건촌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략적 시범 농촌을 건설하라고 지시하였다. 통일촌을 비롯한 민

북마을의 목적은 전쟁으로 인해 유휴농지가 된 민통선내의 농지를 개간하여 농촌을 부강하게 하는데 있었고 당시 국가정책이었던 농촌근대화 사업과 맞물려 있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대북 선전의 목적도 있었다.²⁵⁾

따라서 박정희의 사망으로 박정희 정부시절의 주요 과제였던 농촌근대화와 같은 것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오직 대북 선전의 목적만 남게 되고 제도적, 법적 뒷받침 없이 최고지도자의 지시만으로 진행된다 이후 대통령도 이를 책임질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뒤에 다룰 전두환의 소위 '83조치'에 따른 토지분쟁의 서막이 오르게 되었다. 우선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의 사망 이후 각종 세금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 이00의 증언이다.

구술자 : 요즘은 일반, 밖에 마을하고 똑같이 뭐 취급을 해 버리는 거지. 세금 부과할 거 다 부과하고.

면담자 : 그렇지요. 그전에 그러면 통일촌을 처음 구성할 때는 세금은 안 걸었나요?

구술자 : 그때는 정부시책이니까 군의 통제지역은 군에서 장악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때는 세금 부과를 안했지요.

이와 같은 혜택의 철회와 더불어 입주민들에게 분배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제기되게 되었다. 입주 당시 주민들은 토지 등기를 받지 못했고 오직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말만 믿고 들어온 상황이었다. 안00의 증언에서 나오듯이 이들은 토지 소유권 문제가 불거진 이후 배신감에 시달렸다.

구술자 : 그때 당시에는 집 지어주고, 땅 6,500평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1인당 6,500평을 가지고서는 개간을 해가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했죠. 그때 당시는 73년도에는 6개 부서에서 한전에서 전기 들어오고, 양수시설하고, 집 지어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줄 알고들 희망해서 들어가서, 군인들 또 30세대가 들어가서 옷 벗으면서, 3사단 군인들. 옷 벗으면서 3사단에서 이제 거기 정착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는 아주 포부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대통령 바뀌어, 장관들 바뀌어,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는 거니까 올 때까지도 땅이 내 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45년 그렇게 흘러갔는데.

25) 조성아, “정치적 풍경에서 일상적 정원으로: 유곡리 통일촌 정원 고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p.27.

이00 역시 비슷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다. 박정희 사망 이후 유곡리를 완전히 무관심하게 대했다고 인식한다.

면담자 :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게 이제 79년이잖아요.

구술자 : 네.

면담자 : 그 돌아가셨을 때는 전국은 비상사태였었는데 그죠?

구술자 :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 입주시켜 놓고 별탈이 없었지요. 별 탈이 없고 그 때 후속조치를 해야 했는데 안 그러고 있다가 83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생긴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 전 지역에 그 사람들이 아까 식으로 등기를 낸 거지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후에 정권이 바뀐 뒤부터 전 시골을 여기를 무관심 해 버린 거지요.

김00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마을이 이렇게 어렵게 되지도 않았고 자신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술자 : 박정희 대통령이 살았으면 해결했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했으면 여기 많이 좋아졌을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살았으면. 그런데 뭐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니까 땅 지주들이 전부 다 저거 했잖아요, 정부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했는데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권리 행사하는 거잖아요, 지주들이. 그래가지고 도지 받아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이 집터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십 몇 만원씩 달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지도자의 결단으로 법, 제도적 검토와 뒷받침 없이 진행되었던 정책의 결과 영원할 것 같았던 박정희의 통치가 끝나고 나니 유곡리는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는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1.6 '수복지구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보국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위 8.3조치) 의 시행

유곡리에 들어온 농민들은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황무지가 된 곳을 개간해서 농토를 새로 만들었다. 앞서 안00의 증언에서 보았듯이 농토로 개간된 곳이 아니었고 입주민들이 새로 개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주한 직후 마을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처음에 개간을 위해 고생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공짜로 땅이 주어졌고 이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농민들을 상대로 1970년대부터 토지 원소유자들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를 뒷집지고 지켜보기만 하였다. 토지 원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1970년대 초 입법조치를 강구한 적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보류되었고, 국방부, 내무부도 각각 당사자 간 합의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정부의 태도는 “정부 시책에 의하여 설립된 전략촌이기는 하나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분쟁은 근본적으로 사인 간의 사법상의 문제”라는 태도를 취하였고 결국 주민들은 돈을 주고 땅을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하거나 소작인으로 전략하였다.²⁶⁾

당시의 억울함에 대해 안00의 아내 장00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면접자1 : 그리고 마을에 이거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땅 문제. 그게 해결이 안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애긴 알고 왔었는데 그게 이제 일부는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국유지로 돼서 자산관리공사에 임대로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구술자 : 그거 문제예요, 통일촌의. 그게 전두환 대통령 때 83 조치법 해가지고 거기 땅을 갖다가 등기 있는 사람 등기 싹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고생 많이 했어요,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땅 다 뺏기고. 땅 주인 잘 만나면 그 땅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었고. 그것도 또 그런 형편이 안되는 사람은 못 사고 그랬다고요.

면접자1 : 만약에 오히려 땅 주인은 좀 그 당시 버려졌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분의 아들이나 손자가 오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지 않아요?

구술자 :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네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2개 짓고 이걸 박서방네 땅이고 이 건 이서방네 땅이에요. 지금 이 집도 가을 되면 그거 도지 달라고 와요. 땅 주인이.

26) 김진환, “DMZ의 미래와 인문학”, 『통일문제연구』 24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2, p.177.

면접자1 : 상속 받은 자식들이?

구술자 : 예, 도지마다 가는 거예요. 논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다. 일부 등기 난 사람들은 등기 놓고 안 난 사람들은 안나고, 이게 만약에 1,600평이라면 여기는 등기 나고, 여기는 박서방네, 여기는 이서방네 지금 현재 실정을 그러고 있어요.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그녀의 분노는 전두환을 향한다.

구술자 : 그것도 잘못 했어 정부에서, 땅 사가지고 우리한테 줘야 됐는데. 그냥 밀어만 가지고 주니까. 땅 지주들이 안 찾으려고 그래? 그 사람들 나쁘다고 그럴 수도 없는 거야. 정부에서 잘못했어.

면접자2 : 처음에 딱 행정처리를 잘 했었으면.

구술자 : 그럼 사서 줬든지 어떻게 줬든지 했으면 이 난리를 안 치겠는데. 하여튼 전두환이가 그렇게 만 든거야, 다. 땅 주인들 돈 걷어가지고 몽태기로 갖다 줬겠지, 보따리 사다가...

애초에 사업을 시작했던 당사자는 박정희이고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법,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으며 당시부터 토지 소유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분노는 전두환을 향해 있다. 이는 박정희는 군사적으로, 대북 선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간섭도 많이 했지만 세금도 면제해 주었고, 각종 혜택을 주고, 토지를 분배해 주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애써 감추지만 전두환에게는 부정적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전두환 정권시기의 ‘수복지구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보국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자신들의 미래를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면접자2 : 행정처리를 안하고 그냥 들어와서.

구술자 :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생하면서, 고생만 했지. 뒤끝이 없으니까. 그 다음 땅 임자들이 파산 조치를 해가지고, 전두환이 파산 조치를 했잖아, 그때. 그러가지고는 땅 임자들이 나타난 거야. 공고를 낸 거야, 6개월 동안에. 그때 임자들 나타난 것들은 전부 땅 등기를 다 낸 거야. 그래서 우린 가서 고생만 하고 땅 한 거 다 주인이 찾아가잖아. 다 뺏기고. 아직까지도 서울에서 부지만 받아가는 분들도 있어.

면접자2 : 그러면 그때 분쟁같은 거 났을 때 정부나 군에서 해준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구술자 : 토지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면접자2 : 알아서 하라고 해서 그러면 소송 같은 거 하실 때 그냥 변호사 각자 하시고?

구술자 : 그렇게 할 능력이 돼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면접자2 : 그러면 외지 땅 주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실 수밖에 없으셨겠네요.

구술자 :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나갈 수도 없지. 그때 당시 들어와 가지고 애들 공부시킬 때 니까. 초등학교 공부, 그 다음에 중학교 공부, 고등학교 까지들 전부 돈, 빚을 내 가지고 공부 시키는 사람, 그래도 공부시키고. 또 어디서 빚이라도 못내는 사람은 고등학교도 못 보낸 거야, 그때 당시는. 우리 애들도 고등학교를 못 보냈어요. 할 수 없이. 그냥 빚지고 들어가다시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새출발 할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친척들은 다 바깥에서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들어간 지가 오래니까 좀 나와서 같이 집안들끼리 모여서 살지, 뭐 그러냐고. 하기 좋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 내버리고 와도 집 한 채는 장만할 수가 없잖아요.

안00은 당시의 무기력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어쩔 수 없이 계속 살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정부의 입장은 “사인(私人)간의 사법상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입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었던 만큼 개인들은 무기력하게 토지 원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소작료나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은 정부와 토지 원소유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대응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00의 증언이다.

구술자 : 그게 완전히 소유권을 경지정리해서 새로 지적을 정리해서 소유권을 주었으면 계획대로 주었으면 괜찮은데 입주만 딱 해서 시켜놓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 책임이 많지요. 그래서 소송도 하고 했는데 전부 소송해 봐야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어요? 아무 근거가 없지요. 이거는 뭐 일시적인 법이니까 박정희 정권 바뀌어 버리니까 무효가 돼 버리는 거지요. 이 법을 박정희 정권에서 무모하게 갑자기 맘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후 정권에서 인정을 안한 거지요.

면담자 : 음.

구술자 : 몇 년을 두고 83년도서 거의 7, 8년을 두고 소송을 하고 쫓아 다녔어요. 우리들끼리 돈 모아 가지고 그게 전부 나온 게 정부에서 융자 줄테니까 장기 상환하라고 그 돈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나?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허문 것도 없는데 개인상대로 시키니까 한 집안 땅이라고 안 팔고, 내 종중이라고 안 팔고, 내가 언제는 들어가 살겠다 땅 내놓고 나가라 안 팔고 매각되게 실제 한 20%밖에 안됐어요.

(중략)

구술자 : 여기 들어 보내놓고 그 뒤로 손 떼버렸어요. 이주민이 가서 청와대의 각 부처, 해당 부처나 국회의원사당에 가서 청열대서 겨우 돈 내준 거 뿐이지. 실제 군에서나 도에서 실행해 준거 하나도 없어요. 말썽만 없게 만들려고 자꾸 버스타고 밖에만 나가도 감시를 했어요. 우리는 이 마을 사람을 아주 못된게 강원도였어요.

하지만 이00의 이야기처럼 전혀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에 이길 수 없었고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였다고 한다. 하지만 제대로 해결된 것도 없이 마을 주민들을 감시하고 미봉책으로 자금 용자 등을 제안했다고 억울해 한다.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토지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 이후 유곡리의 주민들은 마을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 자신들이 토지 소유자도 아닐뿐더러 마을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늙은 마을’이 되어 가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자신들의 청춘 시절에 온갖 기대를 받으며 농촌 근대화를 실현하고 남한의 발전상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발되어 마을에 입주했던 그들의 자부심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전망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1.2 민북 마을의 변화와 갈등 양상

1.2.1 마을 출입절차의 변화와 군(軍)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복잡한 감정만큼 마을 주민들은 군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유곡리는 현재까지도 마을 입구에서 검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군 초소에서 출입과정을 관리한다. 지금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신분증을 맡기고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마을이 처음 생겼을 때는 더욱 엄격했다고 한다. 안00의 증언을 들어보자.

구술자 : 그때 당시는 또 이중살림을 못하게 했어요.

면담자1 : 드나드는 걸 못하게 했다 그 얘기시죠?

구술자 : 예, 거기 아주 입주가 되면 정착을 해가지고 초소 통해서 들어가고 그 전에 집안들도 들어가려면 신원증명을 떼가지고, 읍사무소 가서 신원증명을 떼가지고 초소에도 제출하고 그러고 들어

갔으니 얼마나 불편해서 못 드나들고.

면담자2 : 그러면 한 번 여기서 사시다가 철원읍이나 이런 데 나가시려면 그때도 그렇게?

구술자 : 그럼 다하지. 지금도 초소에 들어가려면 오늘도 들어가려면 증명 맡기고 거기서 바꿔가지고 들어 가야 돼.

면담자2 : 그러면 외부에서, 외지에서 선생님 친척 분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 미리?

구술자 : 그때 당시는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초소에다 알려줘야지. 우리 집안 이름 뭐, 생년월일 얼마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확인하고 증명 다 회수해가지고 그때 들여보내고.

안00이 말하는 외부인이 들어올 때 필요하다고 했던 증명은 신원증명서인데 이 신원 증명서는 주민등록지에서만 땔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초기에는 이런 출입문제로 갈등이 많았다고 한다. 안00은 이런 갈등에 대해 조금 불편했다 정도로 이야기 했지만 이 00은 보다 자세하게 어려움을 이야기 해주었다.

구술자 : 농사를 지으려면 그 때 지금은 기계가 짓지만 그때는 소로 전부 모를 심었어요. 밖에서 일꾼을 사와야 돼. 이 동세 사람들 손으로는 다 일시적으로 모를 못 내니까. 일시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못 내니까 사다가 했는데 이 사람들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몰래 산 너머로 가지고 오고 버스타고 오다가 뺏기면 압수되고. 심지어 군에서 처음에 입주해가지고는 아침마다 점호를 했어요. 소등하라고 하면 소등하고 방 뒤져봐서 술 있나 뭐 군수품 뭐 있나 하고 다 뒤지고 여기 현지 주둔하는 대대장급들이 나와 가지고 군대생활하고 똑같지요 뭐. 친척이라도 궁금해서 면회오려고 하면 가까운데 있는 사람은 가까운데 적이 있는 사람이 관계가 없는데 여기가 지위도 다 때가 있어요. 이 마을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그런데 신원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출입을 시켰어요. 신원증명서는 어디서 떼냐. 주민등록지에 없어요. 본적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시면 충청도 살고 서울 사람은 서울 살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가서 주민등록 떼야 여기 초소를 출입했어요. 그렇게 군인 이상으로 한 거 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00은 대대장과 출입문제를 두고 먹살잡이를 하고 싸우고 초소를 때려 부술 정도로 싸웠다고 앞서 진술하였다. 안00과 이00의 증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입절차 복잡하고 친척과 같은 외부인의 방문이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마을에서 만난 여성주민들은 출입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김00의 증언이다.

구술자 : 그래가지고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여기,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여기 이 산으로 넘어 갔다고 넘어 오고. 군에서 마이크로 버스 하나 쫓았어요, 기사 여기 또 나중에 들어왔어.

면담자1 : 운전하시는 분이?

구술자 : 예, 운전하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마이크로 버스 가지고 이만한 봉고차 많은 거 그거 해가지고 그냥 농사지으려니까 팽이, 삽, 뭐 삼태기, 살랭이 바로바로 그렇게 복잡스럽게 그렇게 하고.

면담자1 : 그러면 장 한 번 나가시려면 되게 힘들셨겠네요?

구술자 : 그럼요. 아주 그냥 그 차 한 번 타 볼려면 길도 얼마나 험했어. 지금은 다 아스팔트 됐지만 그 전에는 도창고개 엄청 높았어요.

(중략)

구술자 : 예, 비포장도로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교통편도 그렇게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좋아졌죠.

면담자2 : 그래도 그때도 한 5일에 한 번씩은 장에 가서서 뭐 사시고 그래야 되는데.

구술자 : 그러니까 아주 그 버스 한 번 타려면 뭐 사람이 깨질 정도야.

면담자2 : 그렇게 해서 가시는 장터는?

구술자 : 와수리.

살림을 꾸려야 했던 여성들은 장보러 나가는 것조차 어렵고 힘들었다고 진술한다. 입주 초기 자기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마이크로 버스를 타고 와수리까지 이동해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 대해 김00은 참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마을 출입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간소화 되었다. 이00의 증언에 따르면 88올림픽이 지나고부터 마을 출입절차는 간소화되고 통제의 강도가 약화되었다고 한다. 이00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증언은 앞서 이00이 신원증명서를 떼야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한 증언과 이어지는 구술이다.

면담자 : 그게 몇 년까지였어요?

구술자 : 그게 83쯤, 거의 90년까지 그랬어요.

면담자 : 90년.

구술자 : 네.

면담자 : 아 88올림픽이 끝나고 좀 나아진거네요.

구술자 : 네.

외부인이 마을을 출입하기 위해 본적지에서 신원진술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통제는 88올림픽이 끝나고 90년대 쯤에 없어졌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 대한 일몰시간 이후 출입통제라던지 출입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진 것은 소위 ‘군인 대통령’이 끝난 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구술자 : 달라진 거는 김영삼 정권 때부터 그 이후로 출입도 좀 수월해졌고 여기 생활도 이제 서류만 부치면 됐는데 사단에서 전에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사 간다고 하면 들어올 사람 있으면은 사단에서 신원조회 다하고 타당해야 들여보내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편은 없고 출입하는 것도 사단에서 출입증을 내 주는데 여기 한 10년, 5년 만 갱신을 해줘요. 그러니까 별 요새는 내 차 가지고 갔다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 올 수도 있고 문민정권이 들어와서, 전두환때나 박정희 때는 못했고, 처음에는 노태우때도 똑같이 그랬고.

안00, 김00, 장00 등은 정확한 시기는 기억 못하지만 전부 어느 순간 나아졌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00과 달리 소위 문민정부의 등장과 같은 특정 시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편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안00의 증언이다.

면담자1 : 그게 뭐 저희는 사실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이게 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그런 것도 좋아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건 아니군요? 딱히?

구술자 : 초소가 없어진다는 건 뭐 우리도 항시 어디 철원에서도 건의하고, 노다지 영농민이 불편해가고 건의들을 많이 해가지고 생창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뒤로 들어갔고. 양지리도 뭐야 이거 가봤는지 몰라, 양지리. 양지리도 6사단 검문소가 한탄강 건너가면서 거기 있었는데 지금도 뒤로 많이 가가지고 완화됐어요.

이러한 출입과 관련하여 통제가 완화된 배경에는 8.3조치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출입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상황 그리고 소위 문민정부의 등장과 뒤에 언급하겠지만 지방자치의 실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3> 현재는 이러한 입주증을 통해 마을 주민은
출입이 용이해졌다.(출처: 연구진)

1.2.2 군(軍)과의 마을주민들의 일상적 관계

마을 주민들은 군의 강압적 통제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물론 현재는 그러한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다. 입주 초기에는 이러한 강압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비롯한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마을 입주 초기 부녀회가 조직되어 한 가장 많은 활동은 부대에 대한 위문활동이었고 마을 남자들은 부대와 축구하고 회식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먼저 김00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구술자 : 군 출신들은 옛날에 우리 민간인들하고 친선 게임하느라고 학교에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는 축구하고 이장 집에서 막 술파티하고, 우리집에서 많이 했지, 옛날에. 그리고 대대장님들이 이 마을 위문도 많이 가고.

면접자2 : 아, 위문 가시면 뭘 하세요?

구술자 : 아, 군대에서 만두 빚어가지고 음식 같은 거 해가지고 다 돌고. 그렇게 매년 동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웃음) 만둣국 끓여가지고.

면접자1 : 뭐 설날, 추석 이럴 때 말씀하시는 거죠?

구술자 : 12월 크리스마스 때. 이 마을회관에서 만두 다 빚으면서 찌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이 초소는 누구, 또 노래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노래하고 놀고 위문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저기 분소. 분소마다 다 다니고, 중대마다 다 다니고 그랬어요, 대대도 가고.

마을 주민들은 군과 일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었다. 입주 초기만 해도 군은 매일 점호를 실시하고 때때로 집안을 수색해서 술을 찾아내서 압수하고 마을에 술 반입 자체를 금지시켰다. 또한 외지인의 출입을 통제해서 농사짓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친인척의 출입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00은 키가 큰 작물인 옥수수도 관측에 방해된다고 못 심게 하고 열매가 달린 채로 군인들이 뽑아버린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군부대와 이런 친목 교류를 자주했던 마을 주민들의 속마음에 대해 이00은 다음과 같이 내비쳤다.

면담자 : 혹시 뭐 정기적으로 마을운동회를 하신다든가?

구술자 : 처음에는 했지요. 처음에 들어와서 15년 동안은 전방마을끼리 대대적으로 저쪽 마을이 이쪽에도 오고 군부대하고 마을하고도 이렇게 하고 그대는 젊을 때니까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겨울 크리스마스때 같은데는 군 청소반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만둣국도 와서 끓여다 주고 같이 유흥도 하고 사진 찍고 그래야 견디니까.

마을에 입주한 이후 15년 동안 즉, 1988년까지 군인들과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앞서 입주 초기에 집안 정원에 잔디를 심으라는 요구와 점호와 가택수색과 같은 일상에 대한 통제는 입주 2~3년이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지만 출입에 대한 편의, 제설작업, 대민지원 등을 위해 관계를 호의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2.3 지방자치와 마을

이00씨는 1989년 지방의회에서 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초대 철원군의회 근북면 의원이었다. 유곡리는 근북면의 유일한 리로 한 개 선거구로 인정을 받아서 60가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면의원을 뽑았다. 이런 선거구는 이00의 증언에 따르면 1, 2, 3대 군의원 선거까지 유지되었다. 이00은 자신이 철원군 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유곡리도 주민들의 토지소유권이 유곡리도 주민들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자신이 군 의원 재직 당시 이를 위해 노력했었고, 철원군의 첫 번째 의제로 삼아 추진하여 그를 위한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군 의원으로 일할 당시, 파주시 통일촌의 과거 사례를 상세히 조사하고 사례로 삼아 유곡리 토지문제를 처리하려 하였는데 파주시의 경우는 영관급 제대군인들의 정치적 파위를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자신이 군 의원으로 재직 당시 농어촌진흥공사의 예산을 받아 유곡리 토지구입을 추진하려 하였는데 토지공사의 자금이 투입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유곡리가 이에 미달되었다. 이는 몇 천 만원의 예산을 아끼려고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토지공사의 예산을 사용하려 했던 조그만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다만 자신의 재직 당시, 주택소유권은 인정되었다고 증언하였다.²⁷⁾

이 뿐만 아니라 출입문제와 관련해서 이00씨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시점을 출입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 시점으로 구술하였다. 관련 증언 내용은 앞서 인용한 바 있다. 관련하여 비슷한 시기로 주목한 마을 주민이 있다. 김00씨는 올림픽 이후 마을 부근의 부대들이 이전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면담자2 : 옛날에는 부대가 되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군부대가 많았는데 요새는 많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통폐합하고 그 시점은 언제?

27) 이 증언은 동국대학교 DMZ연구센터와의 사전 면담에서 구술한 것으로 녹취가 이뤄지지 못해 당시 녹취록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팀에서는 철원군의회 회의록을 확인하여 실제 철원군과의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00은 토지공사의 예산을 받아 유곡리 토지문제 해결을 진행하려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실제 철원군 회의록을 찾아본 결과 농어촌진흥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철원군 의회 11회 본회의 2차 회의록 http://152.99.172.16/confer/pop_print.asp?fileid=cserver/data/011/B002 ; 철원군 의회 제7회 본회의 3차 회의록 http://152.99.172.16/confer/pop_print.asp?fileid=cserver/data/007/B003.

구술자 : 인원이 줄었지 뭐. 부대 줄었을 때는 언제나면 여기 대대 있던 게 줄었을 때는 무슨 올림픽이지? 88올림픽 때, 그때 이 대대가 없어졌어요.

올림픽 이후 즉 1989년 이후 마을주변의 부대들이 이전하게 되면서 마을의 출입을 통제할 보안상의 이유가 줄어든 것, 마을 주민들의 항의, 부분적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마을에서 선출된 지방자치의원들의 노력이 마을의 출입통제를 약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점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를 통한 마을출입 통제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안00씨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면담자1 : 투표 이렇게 막 하시고 이래가지고 혹시 뭐 군수가 그런 공약을 내걸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민통선 마을 해제했다 해서 된 경우가 혹시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구술자 : 그거는 없죠.

면담자1 : 도지사도 그렇고.

구술자 : 예, 다 우리 마을에서 의회 의원도 초장에는 있었고.

면담자2 :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민원을 넣으실 거 아니에요?

면담자1 : 어떤 통로로 민원을 넣으시는지?

구술자 :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농촌 사람이 별로 민원 넣어봐야 해결될 게 뭐 있어요.

이런 반응은 정치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뒤에 다룰 마을의 내부 갈등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은 시간의 흐름 속에 묻혀 있는 입주과정에서의 문제와 마을 토지소유권 관련 재판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이 이런 인식을 낳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현재 유곡리는 선거구 조정에 따라 독자 선거구는 더 이상 아니게 되었고 다른 지역과 함께 철원군의원과 강원도의원 선거를 진행하는데 농촌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지역주의’ 문제로 마을 출신 군의원이나 도의원을 배출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 결과 더욱 지방정치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1.2.4 마을 내부 갈등

유곡리는 군에서 제대하고 마을에 입주한 장교나 부사관 출신 30세대와 일반 예비역 출신 30세대로 이루어진 마을이었다.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후 구술조사를 준비하며 마을 내부의 갈등이 존재했음을 선행연구와 마을 관련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관련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그 작업은 쉽지 않았다. 우선 강원 도민일보의 2006년 10월 17일 화요일 “[민북마을 사람들] ④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 체제우위 선전 위해 만든 ‘전략촌’”이라는 기사를 보면 “군출신들과 예비역 출신 각 30세대씩 구성된 입주민들은 서로 다른 이질감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보도에서 꼽고 있는 것은 “초기에는 이장 선출 등 마을 중요 일들을 도맡다시피 했던 군 출신들로 인해 소외감을 느낀 예비역 출신들은 군 출신들과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내홍을 겪었다”라는 보도를 통해 볼 때 입주 초기 군의 통제가 강하게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마을의 주도권에 대한 내부 주민들의 갈등이 존재했음을 볼 수 있다. 관련하여 군 출신이었던 이00의 증언을 검토하면 행간 속에서 군이 군 출신들을 통해 마을을 내부적으로 통제하려했던 시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구술자 : 군인들한테 통제를 받았지요.

면답자 : 국가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구술자 : 해도 지가 성격이 있다고 해서 본연의 이외에 강압적인 그게 있었거든. 갑질을 했죠. 너무나도 그런 내 지역이다. 군인인 나부터 잘하라는 거지. 처음에는 옥수수 같은 것도 1m 넘어가면 못 심게 하고 군인들이 전부 나와서 심어 놓으면 밟아서 이만큼 열매가 달렸어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구술자의 이야기에서 연구자가 주목한 부분은 “군인인 나부터 잘하라는 거지”라는 부분이었다. 군 보안대원들의 마을에 대한 일상적 통제 속에서 군 보안대원들이 구술자에게 군 출신이 이라면 되느냐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었고 이런 무언의 압박은 구술자를 비롯한 군 출신 입주자들의 행동을 제약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행동의 제약으로 인해 예비역 출신들과 초기 갈등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정황상의

추정은 안00의 구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안00은 초기 이장선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동문서답하는 방식으로 회피하였다.

면접자2 : 그러면 그때 군인들 30세대, 민간인 30세대 가셨잖아요. 그 둘 관계는 혹시 군인이 조금 더 이장님 같은 일을 다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구술자 : 아니, 군인들도 다 이렇게 들어간 거는 똑같은.

면접자2 : 아,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60세대가 행복하게 잘 지내신 거예요?

구술자 : 예, 다 똑같지 뭐.

이처럼 안00은 우리의 질문에 별일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연구진은 일단 다른 질문으로 주의를 돌렸다가 다시 질문을 바꿔서 같은 문제를 질문하였다.

면접자2 : 그러면 초창기 마을 이장님은 어느 분이셨어요?

구술자 : 여러 사람이 했죠.

면접자2 : 아, 돌아가면서?

구술자 : 돌아가면서 했죠. 내가 90년대 또 이장했었죠. 거기 들어가면 비석에, 바깥에 다 이름 새겨져 있다고.

면접자2 : 그러면 보통 2-3년 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거네요?

구술자 : 그 다음에 재임하고 또 4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 4년하고, 8년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웃음)

면접자2 : 사이 되게 좋으셨나봐요. 군인 세대랑.

구술자 : 예, 군인들도,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니까. 들어간 다음에는 똑같잖아요. 옷 벗으니까 군인이 뭐 소용이.

면접자1 :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어차피 민간인 분들은 다 각지에서 모이셨지만. 군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안면도 있고 알던 사이니까.

구술자 : 아니에요, 한 부대는 아니니까. 말로만 3사단이지. 말하자면 포병도 있을 거고, 방첩대도 있고. 여러 분야니까 다 모르는 거지. 말로만 3사단이지.

구술자는 초창기 이장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돌아가면서 했죠”라는 동문서답으로 질문을 회피하였다. “군인 세대와의 갈등이 없었냐”는 질문에도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다 좋았다.”라고 하며 질문을 회피하였다. 연구진은 특히 초창기 이장 선출에 대한 질문에 질문을 회피하고 특히 “내가 90년대 또 이장했죠”라고 하며 본인도 이장을 했음을 강조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런 태도를 보며 갈등이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선행연구에서는 관련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군 출신 특히 높은 직급 출신의 주민들이 입주초기부터 마을의 대표를 맡고 중요한 일을 주로 맡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온 예비역 출신 주민들은 차별의식을 느낀 것이다. 반면 이러한 군 출신 주민들은 다른 일반 예비역 출신 주민들과 동화되지 못하고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다. 남편이 장교출신의 주민이자 마을의 요직을 맡았던 B주민은 예비역 출신 주민들과 학력 차이에 따른 고립감과 소외감을 토로했다.²⁸⁾

다음으로 마을 입주민 중 여성들에게 관련 질문을 한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행간에서 갈등구조와 관련한 의미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이중 구술자 1은 사망한 남편은 군인출신으로 초기 마을 조성당시 군청 직원이 본인 집에 머무르며 분배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그 뒤로 마을 이장을 역임하였던 구술자이고, 구술자 2는 구술중 구술자 1의 집에 갑자기 방문한 여성으로, 구술 당시 마을 부녀회 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시집이 유곡리였던 원주민 출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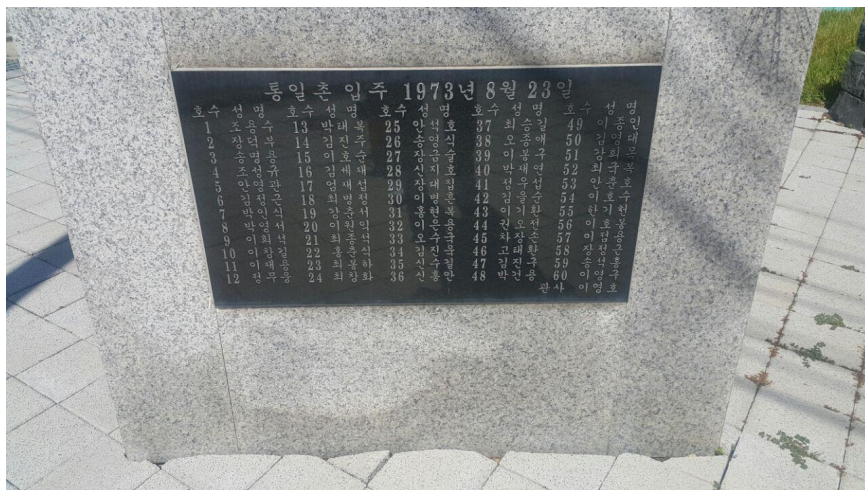
면접자2 : 혹시 남편들은 마을 사이에 뭔가 60가구가 있으니까 혹시 뭐 사이 안좋은 집들도 있고 이러하지 않았을까? 갈등관계나 이렇게 좀 있으신지.

구술자1 :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구술자2 : 아니 여기요. 마을이 단위 부락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참 재미나게 잘 살아요.

28) 이종겸·전상인, 앞의 논문, 『환경논총』 73호, pp.56~57.

마을 내 갈등에 대한 질문은 구술자 1은 “사람 사는게 다 그렇죠”라는 대답을 통해 사실상 갈등이 존재했음을 인정한다. 이에 대해 구술자 2는 “아니 여기요 마을이 단위 부락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참 재미나게 잘 살아요”라고 답하며 즉시 부정한다. 이런 상황을 통해 볼 때 갈등 구조가 존재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4> 마을 초입의 입주초기 관련 자료 (출처: 연구진)

1.2.5 남북관계 변화와 마을의 변화

마을 주민들은 입주 초기에 대북 선전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사상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이었다. 마을을 현지조사하며 실제 목격하기도 하였지만 마을 앞산을 넘으면 바로 군사분계선이었다. 따라서 철저하게 사상적으로 검증을 하고 마을에 입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구술에 따르면 소위 ‘사상적’ 문제로 마을에서 쫓겨난 입주민이 있다고 한다. 김00의 관련 구술을 살펴보자.

구술자 : 예, 농사 잘 짓지 못하고 힘들고 한 분은 나가고, 부부관계 저거 해가지고 나간 분도 있고 또
여기 사상적으로 그 전에는 엄청 그랬어요. 한 사람 쫓겨 나간 사람이 있어요.

면접자1 : 아, 그건 옛날에 예를 들면 아버지 때나 이런 때 북한에 가족이 있다는?

구술자 :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을 잘못 해 가지고.

면접자1 : 아, 뭐 이런 걸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군요?

구술자 : 예, 뭐 김일성 노래를 했다가 어쨌거나, 그때는 엄했잖아요. 73년도 그때 당시는 엄했잖아.

1970년대 남과 북이 상호 체제 경쟁을 벌이고 ‘민족통일’을 위해 유신체제가 선포되기 직전의 시기에 접적지역인 유곡리에서 김일성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마을을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군 보안대의 점호와 가택 수색과 같은 가혹한 일상에 대한 통제와 엄격한 출입통제 역시 당시 엄혹했던 남북관계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을 구술조사하며 남북관계의 발전이 마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질문했을 때 마을 주민들은 큰 관련을 찾지 못했다. 마을 주민들은 남북관계의 발전이 출입 통제 문제나 마을 통제가 완화된 것에 영향을 주었냐는 질문에 큰 관련이 없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절로 된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우선 안00의 구술을 살펴보자.

면접자1 :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휴전선 인근에서 총격전 이런 얘기 했었는데, 북한 핵실험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래서 마을의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북한 넘아가서 약속하고 왔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을이 좀 더 바뀐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구술자 : 그건 없어요. 그냥 매스컴 타서 우리도 그거 보고 하는 거지. 전방이라 해서 느끼는 건 없어요.

안00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든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이든 별로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런 반응은 이00의 구술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면담자 : 얼마 전에 우리 서해안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어요.

구술자 : 네.

면담자 : 그때도 여기는 아무 문제 없었나요?

구술자 : 뭐, 별 관심 없었지요.

면담자 : 서로?

구술자 : 여기는 별.

이00의 구술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 주민들은 현재는 안보에 대한 불안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자신들의 삶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 이런 인식은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공유하고 있다. 김00의 구술을 살펴보자.

면담자1 : 어머님들은 크게 이제 뭐, 남북관계 좋아진다고 해서 나아질 거란 기대가 크게 없으신 거네요?

구술자 : 우리한테 아무 소용 없어.

이런 인식은 이후 다룰 마을의 미래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남북관계의 불안감 혹은 밝은 전망과 자신들의 삶이 관계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입주 초기의 강압적인 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불안감이 많이 사라진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식 구술조사 이전 연구진과의 대화과정에서 안00은 “안보나 전쟁에 대한 위협은 오히려 서울이 크지 않겠냐”며 “이 작고 늙은이들만 있는 마을이 무슨 걱정하겠냐”는 말을 할 정도였다. 이 이야기는 앞서 마을 주민들이 호소했던 마을의 토지 소유권 관련 억울함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을 주민들은 입주 초기와 달리 토지소유권을 잃게 되면서 ‘지켜야 할 것’이 사라진 상황임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마을 주민들의 억울함은 마을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전망으로 이어진다. 이 논의는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1.3 마을주민들이 본 마을의 미래

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우선 8.3특별조치법 이후 마을의 토지 소유권문제로 곤혹을 치른 이후 많은 주민들은 자신이 힘들게 개간한 땅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그나마 땅을 원 소유주로부터 매입하려 하였지만 2000년 들어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유곡리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땅값이 오르게 되었다. 이제 유곡리는 전국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마을이 되어 곧 사라질 마을로 방송이나 언론에서 단골로 다루는 지역이 되었다. 우선 안00씨의 구술을 들어보자.

면접자1 : 혹시 만약에 마을이 철도 연결이 되고 나서 이제 민통선마을이 해제가 되고 통일촌이 해제가 되고 그러면 혹시, 예를 들면 선생님 자제분들이나 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겠다라든지, 할아버지 난 들어가서 농사짓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구술자 : 그런 사람 없어. 우리 마을은 이렇게 살다 폐지될 거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죽어가는데 입주 당시에 그때 60세대 다 젊은 사람들 들어가고 애들 낳아가지고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도 낳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망한 이들이 엄청 많잖아. 여자고, 남자고 죽은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빈집이 있는 건 애들이 서울 나가 있으면서 그냥 지금 빈집이야, 풀도 안깎아주고 이래. 집 수리는 내가 이장하면서 지붕 개량은 다해서 해놨다고. 지금 딱 들어오면 다 지붕개량이 되는데, 와 살지를 않으니까.

(중략)

면접자1 : 소위 말해서 귀농을 하겠다고 그러면.

구술자 : 귀농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마을엔 나도 이장하면서 우리 마을에 귀농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읍에 가서 해도 여기 와서 살 사람이 없어, 신청자도 없어.



<그림 V-5> 유곡리는 현재도 외관상으로 아주 좋다 (출처: 연구진)

안00은 마을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출입을 번거롭게 하는 검문이 해제되고 DMZ지역이 개발이 되어도 유곡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김00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면접자1 : (웃음) 그러면 이제 남북관계가 얼마 전에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서 여기 악수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좋아져서 파주 땅값 오른 얘기도 하시고, 고성 땅값도 얘기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이제 땅 문제가 해결 안돼서 머리 아프긴 하지만 자제분들이 만약에 남북관계 더 좋아지면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구술자 : 없어요, 전망이 있어야 들어오지. 땅값이 오른다 해도 우리네 땅이 있어야지. 여기 와서 전망이 있어, 뭐가 있어.



<그림 V-6>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출처: 연구진)

다만 입주민들은 본인들이 유곡리에 입주해서 만들어온 마을의 역사를 기억하는 작업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토지 소유권을 빼앗겼지만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불모지를 개간하며 자식들을 키워내었던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다는 것에 속상해 했다. 일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는 언론이나 연구자들이 보도나 전시 목적으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황무지를 개간하던 어려운 시절에는 사진기도 흔하지 않았고 찍을 여유도 없었던 것이 속상하다고 한다. 군에서 보안문제로 전방을 배경으로 사진을 못 찍게 했다고도 한다. 장00씨의 구술이다.

면접자1 : 그러니까 그런 건 안계신데. 어쨌든 여기 사시면서 힘드셨고, 분단을 제일 또 앞장서 겪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념할 수 있는, 캠핑장이랑 연계해서 그런 기념관도 만들고, 마을의 생활이 이랬다 이런 걸 해서 관광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희는.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구술자 : 이것도 이제 마을에 맨 처음에 입주를 해가지고 고생한 주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군에서 다 자료를 남겨놔요. 맨 처음부터 그걸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다 남겨놔요. 그런 전시관을 만들 수가 있는데 군에서 그런 그게 있나, 없나 그게 의문이다 이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혹시 3사단이나 철원군에 관련 사진이나 자료가 있는지 궁금해 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운영하는 캠핑장과 연계해서 기념관 같은 것을 운영해서 마을의 역사를, 즉 자신들의 삶의 역사를 알리고 싶어 했다. 따라서 이후 마을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료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해안면의 성립과 발전

1951년 연합군이 진격하기 전까지 북한정권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인 해안면은 분류상 수복지구에 위치한 민북마을이다.²⁹⁾ 또한 56년 유희지 개건을 위해 들어온 개건 1세대가 조성한 공간과 72년 대북 선전마을에 입주해 토지를 일군 개건 2세대의 공간이 함께 뒤섞여 있는, 자립안정촌과 전략촌 양가적 성격을 지니는 곳이기도 하다.

해안면은 한국전쟁 이후 편치불마을로도 불리고 있다. 편치(Punch)는 술과 설탕, 과일과 주스 등을 섞어서 만든 혼합음료이다.³⁰⁾ 영미권에서는 주로 파티음료로 활용되는 편치는 편치불이라는 사발에 담겨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 자신의 잔에 담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된다. 우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안면 마을들에서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다.³¹⁾

2018년 현재 645세대 1,437명이 살고 있는 해안면³²⁾은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마을 구성원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마을 형성 1, 2기에 들어온 토착 원주민과 집단 이주민, 비교적 최근 해안면으로 이주한 귀농세대와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집단들이 마을에 존재한다. 연구자는 그 가운데 민북마을이라는 촌락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원주민, 이주민과 구술자료를 생성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해안면 구술자 6인은 각기 다른 고향에서 태어났고 마을에 정착한 시기와 유형도 서로 다르다. 이 6인의 구술자가 해안면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29) 민북마을의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안면이 지니는 민북마을의 정체성은 앞서 살펴본 유곡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건물의 신축 및 변경,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제외하고 해안면 주민들이 마을 출입, 영농활동 등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흥미로운 점은 해안면은 운전동 일대 8.76km(현재의 오유리) 외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나 해제를 공식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진은 동일한 민북마을의 정체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유곡리와 해안면의 주민들이 느끼는 통제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실제 군 통제 수준의 차이는 마을의 인구 규모 및 소득 수준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란 가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한편, 해안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조치는 다음의 기사를 참조할 것. 경향신문,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해제 충주시·양구군 등 3개지역 70여만평”, 1998. 01. 03.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범수·김경남, “민간인통제선의 복상과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2014.

30) 베버리지 뉴스, “컵테일의 역사”, http://www.beveragenews.co.kr/news_culture/1975.

31) 해안면 주민들을 편치에 비유한 다른 글로는 함광복의 단행본이 있다. 함광복,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Eastward, 2002.

32) 강원통계정보, 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211&tblId=DT_A22A&dbUser=NSI_IN_211.

본 연구에서는 이들 6인을 3가지 정체성을 지니는 집단으로 분류하고, 해당 집단이 마을에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기술하면서 마을의 성립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본 연구의 목적이 민북마을의 형성을 몇 차례 집단 이주의 역사로 환원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민북마을이 국가의 강한 통제 아래 주민들의 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집단 이주 시기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마을과 마찬가지로 해안면에서도 주민들은 끊임없이 마을로 들어오고 또 나가며 삶과 죽음을 반복했다. 예를 들어, 원주로 피란을 간 양구민들 가운데 101명의 청년들은 1953년 10월 군 농장 추수작업 지원을 조건으로 선발대로 양구읍으로 들어갔다.³³⁾ DMZ 분쟁사례팀의 선행연구에서도 공식 입주 2년 전 해안면에 먼저 정착한 아버지를 둔 구술자와의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일부 유민들의 유입이나 생존을 위해 마을로 들어온 이주민들의 사례 역시 해안면 민북마을이 단순히 개건 1세대와 2세대에 의해 구성된 마을이 아님을 방증한다.

2.1 민북마을의 역사적 형성

2.1.1 마을의 형성: 마을에 정착한 세 집단

역사적으로 해안분지는 고려시대 “반화”라는 지명으로 불렸다. 이후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1759년 분지에 4개의 마을 141호 543명의 주민들이 거주하였으며, 고종 32년 해안면으로 정식 등록되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원주민 2세대로 전쟁 이전부터 선대가 해안면에서 살아왔던 이○○씨는 이 기록이 허구가 아님을 증언해주고 있다.

면담자 : 무 배추 농사는 선친께서 해오시던 거를 계속 이어받아서 하셨던 건가요?

구술자 : 그렇지.

면담자 : 그럼 선친께서는 원래 이 지역에서 살아오셨나요?

구술자 : 제가 여기 11대니까 300년 넘었겠쬬. (이○○)

33) G1 강원민방, “dmz스토리_274부 고향 양구로 돌아오던 날”, 2017. 08. 05, 9분 21초부터 참조.

해방이후 소련군정과 북한 정권의 통치하에 있었다가 전쟁 이후 남한의 영토가 된 “수복지구”라는 해안면의 특성은 현재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과거 전쟁 이전부터 살아오던 원주민들만은 아니라는 점을 떠올리게 한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고 이 지역에 살았던 일부 주민들이 북쪽으로 피란을 갔고, 일부 주민들은 마을에 잔류하다 남한 정부가 조성한 피란민 수용소에서 생활해야 했다.³⁴⁾ 남쪽으로 피란을 떠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지가 남쪽에 있던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그 외에는 우연히 남쪽으로 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유엔군 사령관의 수복지구 승인이 1953년 12월에 이뤄지고, 1956년 4월 25일 160세대가 해안면으로 입주³⁵⁾하며 해안면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총 965명이 현리와 오유리에 정착하였으나,³⁶⁾ 전체 가구 가운데 예전 삶의 터전을 찾아 다시 돌아온 원주민은 약 12세대뿐이었다.³⁷⁾

비록 정착민 전체에서 원주민의 수는 적었지만, 이들은 초기 귀환한 이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터전으로 귀환한 원주민들은 ‘고지대에 위치한 분지’라는 지리적 특징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하고 이 지역의 농경문화를 체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함광복의 글을 보면, 초기 농경 생활과 관련된 원주민들과 타지 이주민들의 갈등이 소개된다.

“산간지방 출신들은 못자리를 3월초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평야지방 출신들은 4월초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었다. 어떤 아낙네들은 콩잎을 식용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어떤 이는 오로지 들깨잎만 먹을 수 있다고 우겼다.”³⁸⁾

34) G1 강원민방, “dmz스토리_274부 고향 양구로 돌아오던 날”, 2017. 08. 05, 2분 17초부터 참조.

35) 김창환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p.131. 한편, 함광복의 단행본에는 150가구, 96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함광복, 앞의 책, p.111).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160세대의 965명이 1956년 4월 입주, 1958년 원주민 위주의 2차 입주가 나와 있는바, 선행연구, 자료에서 해안면 입주사와 관련된 서술이 조금씩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안면의 주민 입주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강원도민일보, “민북마을 사람들 7_양구 해안면·고성 명파리”, 2006. 11. 07).

36) 홍금수, 앞의 책, p.113.

37) 함광복, 앞의 책, p.129. 한편, “분단 70년 DMZ 남북 충돌 사례 DB구축” 사업의 연구물에 따르면 현재 마을에 남아 있는 원주민과 원주민 2, 3세대는 약 70세대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 함광복, 앞의 책, p.130.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분지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해안면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경사지 때문에 우천에 따른 피해가 평야지대에 비해 심하다. 또한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급작스럽게 안개가 발생하거나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도 많다. 고산지역이기 때문에 6월부터 야간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등 시기별 기후의 변동 폭 역시 대단히 큰 지역이다.³⁹⁾ 따라서 원주민들은 초기 타 지역에서 농경생활을 하던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이내 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농경생활이 가능하도록 경험을 공유했다. 그 결과 초기 1,000명 미만이던 인구수는 1960년대 초까지 안정적인 인구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그림 V-7>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해안분지. 고산지대에 위치하면서도 분지지형인 것이 인상적이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인삼 재배가 활발하다. (출처: 연구진)

39) 홍금수, 위의 책, p.109

그러나 전쟁 이전 생활하던 주민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해안면이 촌락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이 지역에 전략촌을 건설하여 외부로부터 이주민의 입주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해안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이주민들의 역사는 1956년을 시작으로, 1972년⁴⁰⁾ 만대리와 오유리⁴¹⁾에 전략촌을 건설 하던 시기 해안면으로 이주한 100가구 476명의 이주민들에 의하여 확장되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논 사천 평, 밭 삼천 평을 불하받는다는 약속을 믿고 척박한 해안면으로 들어왔다.



<그림 V-8> 만대리에 놓여있는

‘새농촌건설운동비’ (출처: 연구진)

40) 2차 개척민 입주에 관하여 김창환, 이태희의 경우 1971년 미상으로 표기한 것에 비해, 함광복은 1972년 4월 25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함광복의 단행본에는 오유2리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어 있다. 다만 조○○의 증언으로 볼 때 이 100가구는 중대와 오유리를 합한 가구수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고로 2차 개척민입주 당시 해안면은 인제군 소속이었으나, 2018년 10월 현재 해당년도 인제군통계연보는 온라인상으로 열람할 수 없다. 양구군의 통계연보가 제공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

41) 마을사람 대다수가 오유리를 “중대”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1972년 오유2리에 전략촌이 형성되기 전까지 이 지역에 수색중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증언으로는 “분단 70년 DMZ 남북 충돌 사례 DB구축” 사업에서 진행한 조규학씨의 구술 증언을 참고할 것.

이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모여든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이들이 예비역 군필자라는 점이다. 북한지역과 접해있는, 북에서 마을 주민들의 생활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지역인 해안면의 특성은 통치자들로 하여금 확실한 신분의 주민들만을 이 지역으로 이주시키도록 강제했다. 체제경쟁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시기, 접적지역 주민들은 한편으론 나라의 살림을 개간하는 일꾼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언제 이적행위를 할지 모르는 잠재적 배신자였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비교적 검증된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들을 해안면으로 이주시켰다. 1972년 만대리로 이주한 개척 2세대이자 이주민 1세대인 조○○씨는 자신이 “갑호”였음을 증언한다.

면접자 : 그런데 신청하시고 들어오실 때 그게 그 좀 제가 알기로는 아무나 들여보내주는게 아니라, 뭐 좀 예를 들면 사상적으로든.

구술자 : 그럼.

면접자 : 그런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 신원조회를 다 했지.

면접자 : 신원조회를 다 하셨다고.

구술자 : 갑호, 군인들 갑호, 갑호하면서.

면접자 : 가포요?

구술자 : 갑호.

면접자 : 갑호가 뭘니까?

구술자 : 그러니까 뭐 이제 전쟁이 난다고하면 우선적으로 예비군.

면접자 : 아 예비군대... 제대도 하신지 얼마 안되고

구술자 : 그때 당시 하사관으로 제대했거든.

면접자 : 아, 하사관 제대하셨군요?

구술자 : 그래서 나이는 많아도 갑호를.

(중략)

구술자 : 예비군. 그때 당시 예비군들 전부 갑호니까 갑호라는게 군인 대용이야. 노령이 아니고 뭐 그냥 군 배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격 가진 사람들.

면담자 : 어떻게 하사관 출신이시고 하니까...

구술자 : 제대 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 갑호지.

“갑호”는 “갑호부대”에서 부대를 뺀 주민들의 표현이다. 1968년 창설된 예비군은 이듬해 3월 31일 갑호부대와 예비군 부대로 구분 편성되었는데⁴²⁾ 갑호부대는 지금의 동원 예비군에 해당한다. 예비군이라는 특성은 단지 신분의 보장의 수단으로 활용됨을 넘어서 국가 위기상황에서 이들에게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조○○씨의 진술은 예비역 이주민들이 단순히 접적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유희지를 개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군인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말해준다.

면담자 :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어 옛날로 따지면 김신조 사건이나 뭐 아니면 울진 삼척이나 간첩 넘어 온 때나 그럴 때 같으면 그때는 물론 마을에 안계셨지만 예를 들어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해안을 지키는 건 아버님...

구술자 : 그렇지, 우리 그때 당시 박대통령 사건 때도 그때 벼 벨 때야. 그런데 벼 못 베고 집이 이렇게 보이는데도 못 내려왔어.

면담자 : 부대 지위는 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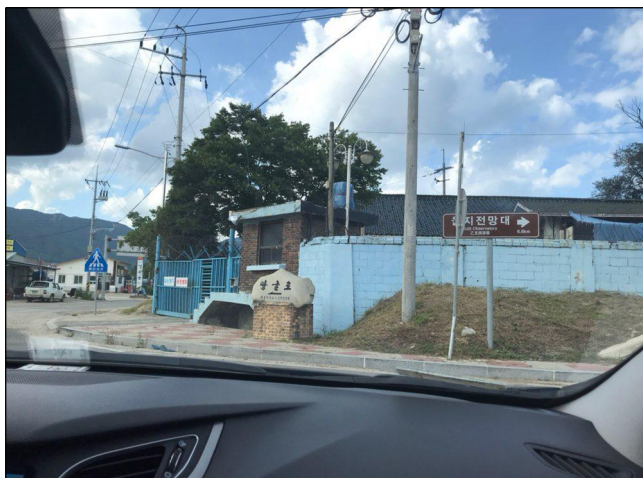
구술자 : 현역이 통제하고...

증언에 따르면 당시 전략촌에 모인 이주민들은 통수권자의 사망이라는, 권력 공백기에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생업과 가족으로부터 유리되어야만 했다. 해안면은 정규부대가 주둔하지 않고, 1개 수색중대가 추진 배치된 지역이었는데, 군의 역할을 민이 대신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농지를 개간하고 삶을 꾸려나가는 것 이외에 경계를 서고 적과 대치하는 것 역시 일상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은 전상인과 이종겸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국가의 지역 민간방위체계 구축의 욕망이 실제 민북마을에서 실현되었음을 증명한다.

전략촌에 정착한 이주 남성 주민들이 예비역이었다는 점은 과거 이 지역 주민들과 군이 맺었던 양가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민북지역과 관련된 최근의 구술사 연구들은 지역 주민들과 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 갈등적 관계로 설명한다. 출입통제의 엄격한 제한, 등화관제에 따른 불편 등이 군민 관계를 상징하는 제도들로 설명되며, 이러한 양상은 해안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본 연구 과정에서 나

42) 국방부, “2016 예비군 실무편람”, p.11.

타난 해안면 주민들의 군에 대한 인식과 실제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보인 것처럼 일방적 위계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림 V-9> 경계를 서지 않는 해안면 초소. 철원
유곡리와는 통제 정도가 다르다. (출처: 연구진)

먼저 검문소에서의 검문에 대하여 구술자들은 외지인에 대하여 엄격할 뿐 생각보다 내지인에 대한 통제는 강하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는 원주민과 이주민 2세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면담자 : 옛날에 어르신께서 고향은 딴 쪽이긴 하지만 볼일 보러 나가시거나 검문 때문에 많이 좀 자제 분들이나.

구술자 : 입주자들은 출입증이 다 있으니까.

면담자 : 금방금방 되나요?

구술자 : 주민등록증처럼 있으니까 새로 온 사람들이나 불편을 봤지. 우리 입주민은 통행하는데...

면담자 : 입주민이라도 검문을 엄격하게 안했나요?

구술자 : 안했어. (조○○)

면담자 : 그러면 혹시 뭐 군인들, 원래는 검문소가 제가 알기로는 터널 앞에 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 거기 있고, 이쪽에 성화리 있었고. 양쪽에서 다 막았지. 여기는 12사, 이쪽은 21사가 옛날부터

막고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어렸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가에 없어졌어요. [김대중 때, 햇볕정책 때부터] 그때 없어졌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차가, 버스가 한 번 아침, 저녁으로 대는 거. 그 다음에 그때는 차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출입에 대한 제한은 크게 없으니까.

면담자 : 출입하실 때는 크게?

구술자 : 불편한 건 몰랐지.

면담자 : 출입증이나 거주증?

구술자 : 출입증이에요. 주민등록증 식으로.

면담자 : 보여주면 바로 통과가 가능하지않아요?

구술자 : 그렇지. 출입증만 있으면 되니까 뭐 거주, 출입에 대한 제한은 크게 제약을 안받았으니까. (김 ○○)

면담자 : 그럼 마을로 들어오실 때 버스타고 들어오실 때 검문을 했나요?

구술자 : 검문 했지. 학생들에게는 심하지 않았어요.

면담자 : 그러면 정착하신 다음에 나가거나 들어가실 때 자유로웠던 편인가요, 선생님이 느끼시기에는?

구술자 : 그렇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 주민이니까 자유로웠지.

(중략)

면담자 : 저희가 다른이나 다른 분들 이야기, 삶의 목소리를 들으면, 군인들이 굉장히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같이 살면서 도움을 받을 건 받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복무하는 건 복무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일상이다...

구술자 : 그렇지 옛날엔 그렇게 생각한거지. 당연히 군인들이 할 일을 한 거고. 우린 여기서 또 민통선 안쪽이니까 당연히 그런 저기 감독을 해야지. 불필요한거는. (이○○)

야간 통제시간을 제외하고 구술자들은 생활과 관련된 이동 관련 통제를 그리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는 원주민과 2차 개척민 모두 동일했다. 원주민 이 ○○씨는 해안면이 철원과 인제와는 다르게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민북마을과 이 지역의 군에 대한 인식과 관계는 달랐을 것이라 판단하기도 했다.

구술자 : 여기 군부대들도 없었어. 여기 초소 하난데 군인들이랑 부닥칠 일이 뭐 있어.

면담자 : 초소에서 병력들만 경계를 하는 거고

구술자 : 그렇지. 군부대가 없으니까 이 안에는.

면담자 :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구술자 :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없어, 아예 없었지. 그러니까 바깥이나 그런 철원하고는 천지차이지 생각자체가.

면담자 : 인제만 해도 군부들이 조금 있는데.

구술자 : 여긴 부대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대가 없다고 여기. 초소 하나 있었지. 두 개 있었지, 여기랑 만대리에 하나 (이○○)

그러나 현재 해안면 주민들이 증언하는 과거 민군의 긍정적 관계를 단순히 군부대 미주둔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순히 내지인에 대한 출입 통제 완화를 넘어서 마을 사람들은 군과 능동적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였다. 의료시설이 외지에 있는 가운데 군에서 마을에서 아프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를 지원한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마을사람들은 과거 몸이 불편했을 때 의무중대에서 치료받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면담자 : 혹시 그 군인들. 지금이야 저녁이면 막는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 앞에서 저녁에 막는다고 치면 예를 들어 이 안에 병원이나 보건소나 옛날에 있었나요?

구술자 : 없었어요. 군인 의무중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면담자 : 의무중대 가서서 진료를 받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구술자 : 예,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뱀에 물렸었어요. 물렸는데, 막 썩으니까 의무중대 엄마랑 가서 소독약 발라다가 안돼서 걸어서 저기 천두리 거기에 보면 의무대인데, 의무중대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비상도로로 해서 걸어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가 고서 진료를 받다가... (김○○)

비단 군의 일방적 의료행위 지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을에 행사가 벌어지면 군에서는 음료나 간식거리를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고, 마을의 부녀회와 같은 집단 역시 군의 행사에 참여하여 음식을 나누기도 했다. 이는 당시 군민관계가 어느 정도 교환에 입각한 상호적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결혼한 이후 해안면으로 이주한 김○○의 사촌 제수인 구술자 C는 해당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면담자 : 마을에서 부대랑 같이 예를 들어 행사같은 것도, 체육대회라든지 행사도 좀 하시고 요즘도 하고 옛날도 하고?

구술자 : 옛날에는 조금 있었지.

면담자 : 그러면 이제 저기 어디야, 철원 말씀을 드리면 철원은 애초에 마을이 생길 때부터 제대 군인들도 같이 60가구 중에 30가구가 제대 군인이고 30가구는 민간인이었대요, 모집해서 들어간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맨날 잔치도 군인들이랑 같이 하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건 아니었던 거네요?

구술자 : (군에서 음료수 가지고 방문을 하면) 그러면 부녀회에서 똑같은 거 해가지고 줘요. (구술자 C)

종합하면 병원을 대신하여 군 내 의무시설을 찾아가고, 마을 행사에 군이 위문을 오면 마을 부녀회에서 다시 군으로 위문을 가는 위와 같은 기억들은 ‘명령’이 아닌 능동적 교환관계 역시 해안면에서 있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해안면에서 인상적인 민군 관계는 영한중학교의 교사로 군인들이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영한중학교는 초등학교 외에 인가된 교육기관이 없던 해안면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아이들에게 교육했던 순수 민간 미인가 중등 교육기관이었다. 당시 교사 초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민들은 인제에 주둔하고 있던 12사단, 21사단 부대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간부들 가운데 일부가 해안면으로 발령을 받아 교사 임무를 수행했다.⁴³⁾

주민들이 군을 상대로 보여준 능동적 협조 요청과 상호 보완적 관계 맺기는 예비군이라는 주민들의 정체성이 발현된 하나의 형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을주민들은 군에서 수행했던 임무의 절차를 기억하고, 군의 지휘, 명령체제를 이해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군 인접 마을에 비해 수평적 관계를 맺기 용이했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주민이나 국가에 의해 선별된 이주민은 아니지만, 생존을 위해 해안면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크게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국가의 화전민 정리사업으로 인제에서 이주해온 화전민들로 구분할 수 있다. 1959년 발생한 태풍 사라는 큰 인명, 재산 피해를 입히며 마을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데 영향력을 끼칠 만큼 위력이 컸다. 실제 철원에 위치한 마현리는 울진에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강원도로 집단 이주하여 형성된 민북마을이다. 마현리의 형성 이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국가의 권고 혹은 자의에 따라 민북마을로 이주한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구술자

43) G1 강원민방, “dmz스토리_106부 해안분지 영한중학교”, 2014. 03. 05, 5분 31초부터 참조.

김○○씨의 아버지도 이런 이재민 출신의 이주자였다.

면담자 :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선생님 혹시 이사오시게 된 배경은 저번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수해 때 아버님께서 피해 입으셨으니까 그걸 들어온 걸로 정부에서 하자고 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제분들은 어떻게?

구술자 : 저희들이 4남 1녀고, 제가 셋째인데, 제일 큰 누님이 계시고 남자가 네 명이서 4형제하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들어온 게.

면담자 : 68년도라고 그러셨나요? 66년도라고 그러셨나요?

구술자 :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들어왔어요. 한 40년이 넘었죠.

면담자 : 자료를 보니까 66년인가 그런 거 같더라고요.

구술자 : 그래서 지금 50년이 넘었죠. 50년 됐겠네. 지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 8살이니까. 50년 전에 그때 들어온 거죠. 벌써 그렇게 됐나?

면담자 : 그러면 이주하시기 전에는 원래 고향에서는 아버지께서 농사 지으셨던 건가요?

구술자 : 예, 우리 기억으로는 원래는 이제 고향이 충청도 충주예요. 내가 이제 듣기로는 영월에서 충주에서 아버지가 사시다가 충주에서 이제 우리 위로 누님하고, 형님 두 분 충주 쪽에서 낳고. 나는 영월 주천리라는 데서 낳았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영월 주천초등학교 다니다가 그런 거 보고 학교 가는 거 기억까지는 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거기서 사셨다는 것만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면담자 : 마을로 아버님께서 이주하시게 될 때 전해 들으신 얘기 중에 정부에서 어떻게 그냥 무작정 가라고 한 건지?

구술자 : 정부에서 가라고 해서 물론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모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면담자 : 그러면 시집을 이쪽으로 오신?

구술자 : 예,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인데. 이모님이 여기 먼저 거주하고 계셔서 우리 아버지를 여기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왔다 그렇게 들어서. (김○○)

‘화전민’ 또한 맨몸으로 해안면에 정착한 이주민이다. 강원도에서는 1964년부터 화전민 이주정착사업을 실시하였고 이 사업은 1976년에 종결되었다. 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인제군 산간에서 화전을 경작하던 주민들 상당수가 정착한 곳이 해안면이다.

구술자 : 으음 여기는 이주해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화전민이 많이 들어왔지. 다른 데서 화전하고 살다가 여기에 저기 나라에서 저기 개간해주니까 들어와 살라고 해서 그때 많이 들어왔지.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왔지 그 사람들이.

면담자 : 나라에서 개간 정책을 했지만...

구술자 : 그래서 들어온거지.

면담자 : 그래서 들어왔지만 따로 지원을 받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구술자 : 없었지. (이○○)

이들 이재민과 화전민은 고향이나 이주 배경은 상이하지만 두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민북마을로 이주한 배경에 국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사라 이후 민북마을에 정착한 이재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의 권고에 의해 이주하였다. 화전민 역시 국가의 화전민 정착정책에 의해 민북마을에 정착하게 된다. 둘째, 이들은 최초 국가로부터 민북마을로 이주하라는 허가 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척박하고 버려진 유휴지를 개간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재민 출신으로 해안면에 들어온 김○○의 기억 속에서, 그의 아버지는 항상 척박한 토지만을 개간하셨다.

면담자 : 그러면 따로 선생님께서는 들어오실 때 알아서 들어오신 거라서 따로 이주 지원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가요?

구술자 : 예, 그렇진 않았어요.

면담자 : 아버님, 선대 들어오실 때.

구술자 : 예, 아버님 들어오실 때, 들어온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땅 받은 건 기억해요. 지금도 이제 어렵듯이나마 그땐 뭐 어렸으니까. 아버지 쫓아서, 쫓아가 가지고 밭에서 콩 심어서 콩이 안됐어요. 그 당시 봤어도 봄에 심을 때 갔다가 가을에도 몇 번 쫓아다녀 보니까 수확이 될 때는 콩이 커야 되는데 땅이 워낙 황무지 땅이니까 지금처럼 화학비료가 많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어놓고 거둬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1-2년 하다가 그 땅을 버리고서는 다른 데로 아버지가. 옛날에만 해도 도지도 아니고 그냥 남의 땅인지 등기가 있는 땅인지도 모르고 한 30년 묵어서 논 같은 형태가 그냥 있는 데가 많았어요. 그걸 갖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가래라고 그래서 옛날에 3명에서 당기는 삽 있잖아요. 그걸로 아버지가 뒤에서 잡으시고 어머니하고 누님은 잡아 당겨가지고 논을 일궈서 벼를 심어서 캐고 그런 기억이 나요. (김○○)

결국 해안면은 전략촌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민북마을임에도, 단순히 국가의 주도로 모인 이주민만으로 구성된 촌락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이곳은 오랜 기간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오던 원주민, 생존을 위해 모여든 외지인들이 전략촌 형성과정에서 이주한 이주민과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모여든 이들 세 집단은 가혹한 자연 환경과 열악한 국가의 지원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척박한 토지를 개간하며, 군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을 통해 촌락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이한 세 집단의 정체성은 뒤섞이고, 해안면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발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한 연대에서 비롯된 수평적 관계의 지향, 국가의 권유로 마을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국가에 대한 불신, 개간한 토지를 등기를 지는 소유주에게 뺏기며 형성된 불만 등이 그것이다.

2.1.2 마을의 발전: 고령화 농촌 마을에서 “청춘”⁴⁴⁾ 마을로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이 거의 없었던 해안면 주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만 했다.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는 방치된 농토를 찾아야 했고, 농토를 찾은 이후에도 우거진 잡목을 제거하고 땅을 갈아야 했다. 전쟁이후 방치된 수복지구를 개간하고 마을을 만든 건 이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군 이주민들이었다. 수해로 인해 해안면으로 이주했던 이주민 2세대인 김○○씨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구술자 : 뭐.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잖아. 그래놓으니까 쫓겨 다니는 건 쫓겨 다니면서 우리 같은 경우도 한 서른 집에서 하던 걸 갖다가 아버지가 싹. 돈은 못 버시고 계속 그거 가지고. 뭐 농사짓는 거 뻘하잖아요. 농사지어서 남의 땅 개간비라고 주라니까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해서 막 아주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리들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지가 십 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고생했어도 돈은 많지 않지만 편안하게 사실만 하잖아. 그런데 고생을 하시면서.

44) 청춘은 양구군의 브랜드네임이기도 하다.

묵묵히 땅을 일구던 개척민 1세대 김씨 아버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쓰러졌다. 이런 그의 죽음은 이 마을을 일군 개척민들의 어려운 삶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2018년 현재 이곳 해안면은 부촌마을, 젊은 농촌마을로 분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다른 대상인 유곡리 마을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해안면 마을의 2세대들은 마을과 가족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 더 이상 국가를 찾지 않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했다.

2.1.3 돈 되는 시래기와 돈 안되는 국가의 약속

편치볼 마을의 대표 특산물 가운데 하나는 시래기이다. 많은 해안면의 농가들이 시래기 재배 및 유통, 판매를 토대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⁴⁵⁾ 군의원 출신의 이○○씨는 해안면에서 시래기가 특산품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면담자 : 시래기가 유명해진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구술자 : 10년, 하, 12년... 12년 전인가? 내 의원할 때인데, 의원할 때 우리 1년 후배, □□이라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서울 다니면서 시래기를 하면 잘 될거 같아 시작한 거지. 그때 시래기 축제도 만들고 12년 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래기가 온거지.

이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개척민 2세대이자 해안면에서 처음으로 시래기를 대량 재배해 판매하기 시작한 □□씨는 구술자와 함께 시래기를 마을의 특산품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시래기 재배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래기 재배 및 판매에 매달렸다. 이후 시래기 판매로 소득을 올리게 되자 □□씨는 이○○씨와 함께 시래기 축제 유치에 나섰다. 이후 시래기 축제는 성공을 거두고 마을의 시래기 재배 농가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

45) 한겨레, “양구 편치볼 시래기, 지역 효자 노릇 톡톡”, 2016. 10. 31,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8158.html>.

있던 마을 단위의 대규모 축제를 어떻게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었냐는 응답에 대한 구술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면담자 : 유통을 하시면서 이게 시래기를 하면 외부 수요가 있어서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분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다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선뜻 동의하고 축제화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 같은데요?

면담자 : 왜 안돼, 잘 팔리는데 왜 안돼.

면담자 : 일단 먼저 하신분이 잘 팔리니까 서로 으쌰으쌰해서 더 키우자 이렇게 된 거군요.

구술자 : 잘 팔리면 하는거지.

면담자 : 처음부터 바로 잘 팔렸나요?

구술자 : 아니아니. 2-3년 걸렸지. 팔리긴 잘 팔렸는데 재배 면적은 차츰차츰 늘어난거지. 5년서부터, 후서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7-8년 전부터 많이 된 거지, 시래기가 많이 늘어난 거지.

면담자 : 처음에는 소규모로 농사를 지었고 그분들이 잘 되는걸 보니까 자꾸 늘어난 거군요.

구술자 : 자꾸 심는거지. 그렇지 (이○○)

잘 팔리면 된다는 구술자의 답변은 이주 2세대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2세대들에게 미래는 현실의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세대와 나 자신이 노력해 얻는 결과일 따름이었다. 개척민들에게 국가가 약속한 7,000평의 토지는 사라지고 소작농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토지의 공백을 대체했다. 이 불안감은 국가가 만들어냈다. 반면 빼앗기면서도 여전히 다른 땅을 일구시던 아버지의 땀방울이 넓은 경작지를 갖는 마을 해안을 만들었다. 젊은이들이 노력하고 기획한 시래기는 현실에서 확실한 부를 창출해냈다.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시래기를 통한 경험이 젊은이들을 추동했다. 2세대들은 국가가 마을을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면담자 : 이 지역 다른 사람도 이 지역이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걸 더 열심히 해서 이 마을을 발전시켜야 겠다 이런거는...

구술자 : 그거는 일반 주민은 없고 우리같은 젊은 사람, 일했던 사람은 해야지. 하고 있고, 평상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중요하지 무슨 관계가 있어 농사 잘되면 되는거지. 내 농산물 잘 팔면 되는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지. 그렇지만 농촌에도 반대로 그 사람들 열 가구 중

에서 세 가구는 달리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끌어주고 하니까 그나마 끌어 가는 거지 다 똑같이 생각하면 그 마을이, 나라가 이끌어가? (이○○)

한편, 해안면 민북마을 2세대들의 위와 같은 인식은 일정 부분 북한의 장마당세대들이 갖는 인식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배급체계가 무너진 가운데 더 이상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를 마주한 장마당세대와, 척박한 땅을 개간하면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가를 직접 경험한 해안면 2세대들은 집단이나 국가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주어진 일에 순응하기 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동적 의사결정을 선호했다. 분단체제에서 권위주의적 국가가 만든 인식체계인지 여부는 현재까지 증명할 수 없으나 흥미로운 지점임에는 분명하다. 해안면은 개척민 2세대들에 의해 양구군의 브랜드 “청춘”이 상징하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2.1.4 농가 소득 창출이 불러온 해안면의 변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착 1세대들은 생존을 위해 해안면의 경작지 면적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갔지만 자신 소유의 토지를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는 없었다. 등기를 소유한 외부의 주민이 개간한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법적 보장을 받거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국가가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리 일을 해도 내 소유의 토지 1평조차 마련하지 못한 개척민 1세대들의 상실감은 자기 자식들은 마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욕망으로 이어졌다.

구술자 : 그 당시(1990년대)에는 농사를 처음서부터 짓지 않잖아요. 여기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하다가 거기서 아니면 초등학교 다니고선 옛날엔 공장이라 서울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15살 이상 돼서 나가서 스물 몇 살까지 거기서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게 거의 한 80%가 넘었어요.⁴⁶⁾ (구술자 김○○)

면접자 : 나와서 일하실 때 그때 뵈신 거고요? 그러면 자제분들은 다 나가 계신 건가요?

46) 구술자의 증언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안면의 경제 상황에 변화가 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구술자 : 예, 여기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제가 서울로 유학을 시켰죠. 여기 너무 오지라서. 제가 서울에 살았었기 때문에 너무 오지고, 중학교도 조그마하고 이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유학을 시켰어요. (구술자 C)

현실의 어려움이 해안면의 이촌향도를 불러오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면, 발달하는 기술 역시 이를 가속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농기구의 발달은 1인당 경작 가능면적의 증가를 불러일으켰고, 농촌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는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분단 70년 DMZ 남북 충돌 사례 DB구축”팀의 선행연구 중에는 저장, 냉장기술의 발달이 약재 재배 농가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농민의 증언이 담겨져 있다.⁴⁷⁾ 결국, 국가의 정책이 불러온 생활에 대한 불안감, 줄어드는 농가 소득은 마을의 젊은 세대들을 끊임없이 도시로 떠나도록 만들었다. 해안면도 결국 여타 쇠락하는 농촌마을처럼 점점 노령화가 진행되었고, 마을 개척민 1세대들이 점점 줄어들며, 개간된 많은 토지들이 다시 유향지로 변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경작지는 발달한 농업기술과 연계되며 예상치 못한 소득 창출을 불러왔다. 먼저 발달한 농업기술은 같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토지에서의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단위면적당 생산비용의 하락을 의미했으며 개인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의 증가를 뜻하기도 했다. 한편 경작 가능한 토지의 증가는 토지 사용 요금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토지 면적의 절대치 증가와도 관련 있지만 마을에 농업을 지을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든 결과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인당 만평 이상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들이 판매하여 올리는 농가소득 역시 증가했다.

다양한 고소득 작물의 재배,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상품 작물의 출하 역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앞서 다룬 시래기 외에도 인삼은 해안면 농가의 고소득을 보장하는 상품작물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기온의 상승은 사과와 같은 작물의 재배를 가능하게 했고 이 지역에서 출하되는 사과의 품질이 입소문을 타자 비싼 값에 팔리기 시작했다.

47) 과거 약재는 장기 보관이 어려웠기 때문에 채취 후 4일 이상 지난 약재는 전량 폐기해야만 했고 이에 따라 약재의 수요가 늘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냉장 및 보관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폐기되는 약재들이 줄어들면서 약재의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약재의 가격이 하락하며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구술자 :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편리해서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여기가 그래도 농토가 많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다른 데 가서 연봉 2-3천만원 받느니 여기서 잘하면 1억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인삼 농사짓고 이런 게 있잖아. 그냥 밭농사만 지어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관계로 들어오는 거지. (구술자 C)

마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마을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C씨는 상품작물의 개발과 늘어난 농토가 젊은 세대들을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의 해안면은 정착 세대들의 처절했던 노력이 우연과 겹쳐지고, 또 젊은 세대들의 도전과 맞물리며 이뤄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V-10> 통일관 옆 과수원. 해안면은 과일 재배가 가능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 평균 기온이 올라갔다.

2.2 민북마을의 해체와 갈등 양상

여느 지방 농촌마을과는 다르게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수를 유지중인 해안면이지만, 과거 이주민 1세대들은 그 누구보다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어려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개건한 토지를 빼앗기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버려

지고 방치된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해당 토지의 등기권리증(이하 등기증)을 가진 외부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토지를 개간한 주민들에게 새롭게 등장한 원주민은 “등기”를 무기로 땅을 빼앗는 약탈자로 변화했다. 이주 초기 국가는 미복토지⁴⁸⁾, 유희지의 개간을 이주민들에게 전가시켰다. 많은 개척 1, 2세대들은 척박한 땅을 옥수수 등의 배급물자로 버티며 옥토로 개간했다. 그 과정에서 불발탄과 지뢰에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기도 했다. 그런데 토지가 농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간된 이후 토지 소유권을 지니고 있던 외부 원주민들이 해안면으로 복귀해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안면은 미등기 토지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수해로 집을 잃고 해안면에 정착했던 김○○씨의 아버지가 항상 척박한 땅을 개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면담자 : 그런데 이제 그게 다른 지역도 보니까 사실은 그런 버려진 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여기 농사 지어라.

구술자 : 그러지는 않았어요. 국가에서는 여기 들어오는 거 출입만 했지. 이제 또 여기가 지금도 이제 여기는 예를 들어 7시 넘으면 여기서도 저쪽으로 문을 막아놔요. 그러면 저쪽으로 돌아 다녔는데. 뭐 누가 여기 개간해라 이러진 않고 우리가 논자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등기가 없는 줄 알고 농사를 지어서, 지으려고 개간을 하면 한 2-3년 지나면 그때까지 개간하지 않고 가만 놔둬요. 그리고나서 한 2-3년, 3-4년 지나면 이제 그때는 쉽게 농사지를 정도가 되면 아, 이거 내 땅이다 등기장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나서 뺏겨서 몇 번을 아버지가 쫓겨 다니다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0집에서 그런 사람들 하고서 군에다가 얘기해서 토마토 뒤에 이제 거기 한 2만 평 정도 그것도 이제 뭐 개간 허락만 받아서. (김○○)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개간한 땅을 일순간에 등기증을 지닌 타인에게 빼앗긴 이주민들의 심정은 참담했다. 토지를 둘러싼 갈등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당시를 아래와 같이 기억했다.

48) 소유자 미복구토지: “소유자미복구토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면담자 : 원주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구술자 : 많이 했죠. 이 사람들이 등기를 많이 냈어. 권리행사 하고 우리가 일구면 뺏기도 하고 뺏긴 사람 많지.

면담자 : 요즘도?

구술자 :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정도.

면담자 : 정리가 된 건가요?

구술자 : 질서가 잡혔는데.

면담자 : 80년대 90년대 이때.

구술자 : 예.

면담자 : 맞나요? 80년대 90년대 그쯤.

(중략)

면담자 : 그럼 마을 주민들끼리 땅 문제 때문에 말고도 다른 문제 때문에 원주민들하고 이주민들하고도 뭐 그런 땅 문제 말고도 서로 이제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갈등 같은 건 없었나요?

구술자 :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갈등이 많고 또 그 땅을 안뺏기려고 고소질도 하고 뭐 많이 그렸는데 어쨌든 수복등기보다 일정때 등기는 그건 뭐 수복 등기는 그냥 이 사람 붙인다는데 육명이지만은? 일정때 등기는 진짜잖아? 그거 있으면 뭐 어쩔수 없이 뺏기는 거고 뺏기는 사람 너무 억울해하고 (조○○)

구술자 조○○씨는 ‘억울하다’는 표현으로 토지를 빼앗은 원주민에 대한 심정을 표현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구술자의 몸에 남아있는 근육과 굳은살은 그가 억울함을 달랠 길이 다른 유흥지를 개건하는 것 말고는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11대가 해안면에서 살아왔던 원주민 2세대인 이○○씨 역시 원주민이면서 또 다른 원주민에게 토지를 빼앗겼다는 점이다.

구술자 : 옛날에는 집에서 받은 건 등기 난 땅은 별로 없었고 다 개간한 땅이지. 미복토지.

면담자 : 그 땅을 계속 하시다가. 그러면 앞서 계셨던 선생님은 공동으로 개간도 하고 개간 허가된 토지를 하다가 원래 등기 소유주이던 사람들이 나오면 다시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구술자 : 우리도 그랬지 (이○○)

원주민 2세대인 이○○씨마저 등기증을 소유한 다른 원주민에게 토지를 빼앗기면서 이주민-원주민간의 갈등은 1956년 이후 마을에 들어온 이주민과 등기증을 보유한 원주민의 갈등이 되었다. 1956년 지형에 적응한 집단과 적응하지 못한 집단 사이에서 영농 방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했던 갈등이 이 시점 이후부터는 새롭게 민북마을을 형성한 집단과 그들이 형성한 토지를 빼앗으려는 집단의 갈등으로 전환된 것이다.⁴⁹⁾

2.3 마을주민들이 본 마을의 미래

1956년부터 72년까지 입주하여 마을의 토대를 마련한 해안면 이주민 1-2세대 주민들은 고향으로의 귀환, 더 나은 경제적 생활을 꿈꾸며 해안면에 정착했다. 누군가에게는 자연에 의해 무기력하게 망가진 일상을 대신할 새로운 출발선이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정착한 새로운 고향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이 어떤 것이었는지 간에 이주민 1세대의 소망은 실현되지 못한 듯하다. 김○○씨의 아버지처럼 평생을 척박한 땅을 개간하되 그 결실을 누리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에 환멸을 느끼고 국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으며 마을의 변화에도 부정적이 되었다. 만대리의 역사와 삶을 함께 하고 있는 조○○씨가 이의 대표적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산을 밭으로 일구고, 부인과 함께 경작지를 늘려나가며, 원주민과의 토지 분쟁에서는 군청을 찾아가 항의도 서슴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마을의 발전과 삶의 개선보다는 마을의 쇠락을 걱정하는 입장이다.

면담자 : 거제 말고 여기도 디엠제트 비무장지대 그 한가운데에다가 공원 만든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도 요즘 또 뭐 남북관계가 좀 좋아지면서 얼마 전에 군사회담에서는 전방에 있는 지피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관측소들 다 뒤로 빼고 비무장지대를 정확하게 2km, 비무장지대 정확하게 지키고 좋아지면서 군대도 빠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다른 지역 파

49) 선행연구에 의하면 토지와 관련된 마을의 갈등은 원주민 사이의 갈등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갈등으로 이어진다. 해안면 주민들의 토지 관련 국가에 대한 반감은 “분단 70년 DMZ 남북 충돌 사례 DB구축” 연구팀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일군 땅에 농사를 지을 때 국가에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 제공을 약속했던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으며, 국가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이란 기대 자체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주나 고성이나 이런 데는 철도 연결, 도로 연결 이야기 나오면서 땅값이 오르니 이런 이야기가 있잖습니까. 여기는 따로 그런 이야기 없나요?

구술자 :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발전이란건 있을 수도 없고 지형적으로는 여기가.

면담자 : 썩 들어가 있어가지고.

구술자 : 그때 아는 사람 따라서 전방 가보니까 이 너머가 아주 큰 강이 있더군요.

면담자 : 북한쪽예요?

구술자 : 민통선 이쪽에 강이 있고 한데, 뭐 그 디엠지 무슨 평화공원이고 뭐고 철원이나 저 고성에 하는 이야기지 여 양구는.

면담자 : 그런 큰 기대는...

구술자 : 기대는 없고 민통선 북방을 우리 반장이 와서 맨날 신문을 보는데 전방 군인들이 철수한다면 우리 강원도는 더 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뉴스들. 여기 양구, 인제, 원통 다 군인들 보고 그렇지 군인들 다 떠나면 여기 버스나 땡길까?

면담자 : 물러나도 근처에 있겠쥬 뭐 그러니까 전방에서 나온다는 거쥬, 최전방에서.

구술자 : 그 양반들이 얼로 이동한다는건... 아유, 강원도 군인들 가면 굶어 죽을거야. (조○○)

그는 비무장지대 안에 주둔하고 있는 GP가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강원도의 경제를 걱정했다. 강원도에서 군인이 줄어들 경우 지역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농촌마을 해안면에 대한 걱정도 컸다. 마을의 미래에 대한 그의 답변은 앞서 살펴본 개척 2세대 구술자들의 인식과는 상반된 진술로 일관되었다.

면담자 : 발전은...

구술자 : 기대는 없고.

면담자 : 도시처럼 될까다 이런 기대는 아예 없으신거네요.

구술자 : 그래 이제 흐름을 보니까 요즘은 이제 퇴직도 하고 서울에서 퇴직해서 나이 많고 뭐 집이라도 팔아서 몇 억 가져 온 사람들이 이제 와보니까 땅값 제일 싼 데가 여기야. 용대리 내가 살던 데 차도 못 들어가는데도 최하 삼십만원이야 평당. 찻길 옆에는 무조건 백오십만원이야 평당. 그런데 여기는 만 오천원 받으면 팔아버려. 이것도 디엠지 생태공원에 와서 그 사람들이 정부가 가격으로 샀으니까 그게 가격이지. 그전에는 평당 만원 뭐 저기 했는데, 평당 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나 여기. 그거 개간하려고 보면 우린 개간 아이고, 그래 여기가 사람이 입주를 와가지고 농사 짓겠다는 사람 누가 있어 여기. 타산이 안맞는데.

면담자 : 여기 뭐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사람 말고는 안들어오는거 같더라구요.

구술자 : 안들어와요. 농사도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주니까.

면담자 : 외국 사람들.

구술자 : 일하는 사람 거의 싹 외국 사람이지. 지방 사람들 일할 힘도 없고 다 늙어 빠져가지고 (하허허) 여가 지금 사람들이 여기 아이고 농사 그게 내 일인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농사 되지가 않아. 농사지면 뭐하러 뭐... 안좋잖아.

그는 1세대들이 은퇴한 빈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낮은 농산물 가격 때문에 농업을 통한 이윤 창출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믿었으며, 고산지대 분지라는 지리적 특성상 서비스업이 크게 발달하거나 공장이 들어서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지역에 학교가 설립되고, 터널이 완공되는 사건들은 모두 뛰어난 지역 인재들의 공이었다고 기억하는 그의 성향을 미뤄볼 때, 해안면의 발전 역시 국가나 마을 차원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할 가능성이 높다.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지 않는 그의 인터뷰 결과 역시 이러한 이유의 반영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해안면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 모두가 이와 같지는 않았다. 앞서 해안면이 농촌마을로 당분간 정체성을 유지한 가운데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던 이○○씨는 만약 가능하다면 해안면의 농업체계를 과거로 돌린 뒤 혁신하여 농업에서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면담자 : 앞으로 바라시는건 없으신가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거나

구술자 : 바라는건 농사짓기 편한, 바라는거는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면담자 : 옛날이라면 어떤?

구술자 : 개간이 안된 마을. 옛날 마을. 더 낫다는 거지. 아마 소득 규모가 더 높아진다고 봐.

면담자 : 개간이 안됐을 때 오히려? 그건 어떤 것 때문이신거예요?

구술자 : 관광객이 여기가 유일하게 안보관광지가 있는데, 이런 지역이,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도 와서 본 사람들이 보면 알거 아니야. 이게 옛날로 갔으면 관광자원이나 농사 짓기 더 낫지. 지금까지 농업, 개간했기 때문에 친환경도 안 되고 하는 거지. 옛날식으로 하면 친환경이 안돼. (이○○)

같은 마을 주민이라도 마을의 전망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그들이 속한 집단의 차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토지에 대한 제한요소가 적었던(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던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 2세대 이○○씨는 비교적 마을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입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배경이 현재의 토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기반 없이 마을에 정착한 개척 2세대 이주민 조○○씨는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활한 부의 창출이 쉽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농업 이외의 다른 발전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가는 그동안 자신의 삶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새로운 발전 동력을 국가가 조성할 수 없다는 인식과 연동되어 미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Ⅵ. 결론

1. 유곡리와 해안면 비교

우리가 구술조사를 진행했던 철원군 유곡리 주민과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 마을에 입주하게 되었다. 철원군 유곡리는 체제경쟁을 위해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마을로 주민선발부터 마을 운영까지 국가에서 관리한 지역이었다. 양구군 해안면은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지역으로 전쟁이후 조금씩 마을 출입이 허용되다가 1956년에는 유흥지 개건, 1972년에는 대북 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마을이었다. 즉, 철원군 유곡리는 마을 형성부터 대북선전 마을을 목표로 철저한 계획과 관리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해안면은 전후 농경을 위한 출입과 유흥지 개간을 위해 마을을 조금씩 재건하다가 1972년 본격적으로 선전마을로 만들고자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마을 형성과정의 차이는 초기 두 마을 내부의 갈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유곡리에 입주했던 주민들은 주변 군 부대의 장교나 부사관 출신 30세대와 예비군 출신 일반 농민 30세대로 구성되었다. 장교나 부사관 출신 주민들은 초기 마을의 이장을 맡으며 군부대, 행정기관 등과 교섭을 담당하였다.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출입이 군 부대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주변 군 부대와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장교나 부사관 출신들이 유리했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곧 마을 내부의 갈등 요인이 되었다. 계속 장교, 부사관 출신이 마을 이장을 맡는 문제와 관련하여 마을 내부의 ‘권력’ 갈등이 벌어진 것이다.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영농활동을 해야 하는데 장교, 부사관 출신들은 마을 행정이나 군부대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교섭에는 익숙하지만 농사에는 익숙하지 못하였다. 그에 반해 일반 예비군 입주민들은 그 반대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적으로 군부대와 행정기관의 통제가 약화됨에 따라 영농작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권력관계의 역전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갈등이 확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초기 해안면은 눈에 띄는 마을 내부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기존에 마을에 거주했던 소수의 원주민들과 이후에 입주하게 되는 이주민 사이에 초기 영농작업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이 나타나지만 곧 해소된다. 해안면은 원주민들이 영농 방식에서부터 군부대와 행정기관과의 관계 문제까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곡리와 해안면은 토지 원 소유자와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갈등 양상을 보인다. 유곡리는 소위 '83조치'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마을 내부의 갈등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토지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교, 부사관 출신 주민과 일반 예비군 출신 주민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 하지만 해안면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기나긴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두 지역의 이주민들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 이런 상처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자라게 되었다. 국가에 대한 불신은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남게 되었는데 마을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두 지역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곡리는 현재도 검문이 이뤄지고 출입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반면 해안면은 검문은 받지 않아도 되고 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춘천이나 양구로의 접근이 수월해졌다.

유곡리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소멸마을'로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자식들도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곧 사라질 마을로 인식하고 있다. 주변에 캠핑장도 만들어지고 화훼나 파프리카 같은 특산물 재배로 나름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새롭게 유입되는 젊은 귀농인구는 없다고 한다.

그 반면 해안면은 마을 주민들의 2세대가 마을의 주류가 되면서 3세대들도 도시에서 다시 귀농을 하기도 하고 시래기 재배와 가공 혹은 안보관광과 관련한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마을의 재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노동력은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농가 소득이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각주 29번의 지적

과도 관련이 있다. 즉, 건물의 신축 및 변경,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제외하고 해안면 주민들이 마을 출입, 영농활동 등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없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해안면은 운전동 일대 8.76km²(현재의 오유리) 외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나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지역은 여전히 민북마을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만 유곡리와 해안면의 주민들과 출입하는 외부인들이 느끼는 통제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실제 군 통제 수준의 차이는 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른 및 소득 수준 그리고 지방자치의 성장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마을의 미래와 관련하여 두 지역 모두 국가적 지원이나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전망을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해안면 주민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지역이 변화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차이를 바탕으로 두고 두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며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는 지역 재생사업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정책제안

2.1 지역 재생사업의 조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지역 재생사업은 공동체를 복원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관광지로 지역을 개발하고, 문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특화작물 재배 지원 혹은 산업 단지 건설과 같은 것에 주목하였다. 이런 사업의 결과 주민들의 실제적인 일상과 괴리된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건설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런 현상을 비판하며 ‘마을 만들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일본의 ‘마치즈くり(まちづくり)’를 번역한 것으로 ‘주민의 생활터전에 있어서 토지의 공동이용과 그 위에 성립된 공동생활조건의 정비를 목적으로 생활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지역의 모습을 달성해 가는 활동’⁵⁰⁾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 평화협력의 시대에 유곡리와 해안면과 같은 소위 민북마을의 재생작업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을 내부의 주체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본에서 시작되어 한국에 들어온 마을 만들기는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편리하게, 보다 인간답게 생활해 가기 위한 공동의 장(場)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정의된다.⁵¹⁾

우리가 둘러본 유곡리와 해안면에는 중앙 정부 차원의 건설 사업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곡리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을회관, 체육 시설도 설치되어 있었다. 과거 유곡초등학교 자리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마을 주민들은 화훼와 파프리카 등 특목 작물 재배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해안면의 경우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을 활용한 안보관광이 이뤄지고 있으며 시래기 재배와 가공을 통해 농가 수입도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편의 시설도 잘 이루어져 있다. 상대적으로 주변 대도시에 비하면 부족할 수 있지만 지역 재생을 위한 물적 조건은 마련되어 있다.

50) 이민주,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이 인식하는 주민 간 갈등양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p.9~11.

51) 전경호, 『귀농인 주도의 마을 공동체 재생운동에 대한 사례연구 - 전라남도 담양군 J마을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pp.16~17.

2.2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접경지역 경제벨트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접경지역 경제벨트는 DMZ, 한강하구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여 생태관광, 환경관광의 그린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해권 경제벨트와 서해권 경제벨트와 연계하여 접경지역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DMZ 생태·평화 안보지구를 지정하고 DMZ 한반도 생태평화연구원과 기상관측소를 설치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의료관광 및 생태 관광단지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소도 건립하여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며 남북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DMZ 보존과 관련하여 UN 산하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유치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접경지역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철도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과 동해선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강원도 접경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설악산, 금강산, 원산 등과 연계한 동해 경제협력벨트의 배후지대로 강원 중부의 양구, 철원, 인제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남북 접경지역에 관광분야 협력을 위한 남북 공동 교육기관(가칭: 통일관광산업대학) 등의 설치 역시 고려 가능할 것이다.

2.3 지역 재생사업의 과제

앞서 접경지역의 남북협력사업 구상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하지만 앞서 유곡리와 해안면 주민들의 구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들은 국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유곡리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고령화와 토지문제로 인해 유곡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안면의 경우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제가 완화 혹은 해제될 경우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라 접경지역의 남북협력은 본격화 될 것이다.

이런 시기에 지역 내부의 주체,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연계 없는 남북 협력사업의 전개는 일부 투기세력에게 그 성과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앙 정부와 강원도는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마을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최전선인 민북마을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온 주민들이 평화와 남북 협력의 시대에 ‘자신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편리하게, 보다 인간답게 생활해 가기 위한 공동의 장(場)을 만들어 가는 것’을 지원하고 이런 바탕위에 DMZ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제가 제기된다.

2.4 주민-지자체-국가가 연계한 접경지역 재생사업 제안

우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야기 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마을 입주 이후 토지 소유권 분쟁 등을 거치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이 살아 온 삶에 대한 역사적 기록 작업이 요구된다. 민북마을은 그 형태가 어떠한 남북 분단으로 파생되었고, 민북마을 주민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분단과 남북 체제 경쟁에 의한 긴장과 경직성, 국가와 군에 의한 통제 등 일반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민북마을 주민들에게는 일상이었다. 또한 국가의 기획으로 탄생된 민북마을은 마을의 발전과 쇠퇴까지 국가 정책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면서 마을 주민들의 자발성을 회복하는데 족쇄로 작용하기도 했다.

민북마을과 마을주민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국가권력이 개인과 지역공동체에 미친 영향, 특히 분단 상황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과 마을에 행한 비틀어진 과오를 인정하고 마을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의 첫 걸음이다. 또한 국가권력을 떠나 지역공동체가 가져야 할 자발성과 자주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민북마을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지난시기 정부로부터 받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난 삶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 작업(가칭: 분단의 생활사 연구)을 통해 구술사 자료를 축적하고 당시의 삶을 복원할 수 있는 생활사 자료 수집을 통해 박물관(가칭: 분단 생활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성군의 DMZ박물관을 활용

하는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바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민북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할 독자적인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강원도는 “탄광촌의 생활과 문화”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폐광과 관련한 강원도의 역사적 기록과 폐광지역 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칭)“민북마을의 생활과 문화”와 같은 홈페이지를 강원도 차원에서 운영하면서 동시에 강원연구원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민북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마을주민들을 자발성을 회복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지역사업의 한 주체로 나설 때 접경지역 경제벨트 구상에 따른 대규모 건설 및 토목사업 과정에서 벌어지게 될 마을의 해체와 갈등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북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성 회복과 자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지원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주민들의 삶과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접경지역 남북협력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우선 민북마을 주민들의 겪고 있는 분단체제 하의 고통과 절망감에 공감하고 스스로 이야기하게 하여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민북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초보적인 기여를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 평화 협력사업과 연계한 마을 재생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강원연구원 차원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마을 주민들은 우리 연구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그들의 속 깊은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특히 마을 내부의 갈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행간, 대답 회피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면접대상자와의 충분한 친밀감 형성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자 진행된 한계가 있다.

둘째, 면접대상자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진이 과거 수행하였던 북한 이탈주민 면접과정에서 구술의 오염을 막기 위해 면담자와 구술자가 단독으로 면접하는 것에 준하여 민북마을 주민과의 구술조사도 단독으로 진행하다 보니 충분한 면접조사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구술자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진행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의 절망감을 충분히 듣고 그들의 삶을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들의 삶의 기록과 삶의 현장들이 보존되고 유지되며 기억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있다.

■ 참고문헌

- 관련 보고서·논문 및 발표자료

- 김귀옥(1998),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 속초 ‘아비마을’과 김제‘용지농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범수·김경남(2014), “민간인통제선의 복상과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 김일한A(2016), “위험한 평화와 공존하기:강원도 민통선 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평화학연구』 17권 1호.
- 김일한B(2017), “간헐 평화와 조강의 공존: 경기도 민통선 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평화학연구』 18권 3호.
- 김재한(2011), “DMZ 연구의 오해와 논제”, 『통일문제연구』 23권 2호.
- 김정웅(2015), “구술 스토리텔링 기반의 마을만들기 활성화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웅·유동환(2017), “‘지역주민의 구술의 콘텐츠화’를 위한 구술수집기획 방안연구”, 『문화콘텐츠연구』 제10호.
- 김진환(2012), “DMZ의 미래와 인문학”, 『통일문제연구』 24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 김호연·엄찬호(2010), “구술사를 활용한 인문치료의 모색 : 기억, 트라우마, 그리고 역사치료”, 『인문과학연구』 제 24집.
- 박민철(2017), “분단체제의 공간성: DMZ와 접경지역의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vol28 no3.
- 박선일·배선학(2018),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용한 DMZ 연구 동향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4 no3.
- 베버리지 뉴스 : “칵테일의 역사”(1975).
- 윤택림 편역(2010),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서울: 아르케.
- 이민우(2011),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이 인식하는 주민 간 갈등양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원호·박삼옥(2004),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이해 -소외성의 형성과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2호.

- 이종겸·전상인, “DMZ지역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연구”, 『환경논총』 57호.
- 이희연·김무한(2016), “통일촌 유곡리 일상화 장소성 발굴과 유곡리 브랜딩”, 『환경논총』 57호.
- 이희영(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 전경호(2013), 「귀농인 주도의 마을 공동체 재생운동에 대한 사례연구 - 전라남도 담양군 J마을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상인·이종겸(2017), “DMZ국가촌락 사업 연구-철원군 ‘통일촌’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52권 제4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조성아(2017), “정치적 풍경에서 일상적 정원으로: 유곡리 통일촌 정원 고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향란(2013), “마르세이유 경제 현실과 구술사를 통한 사회통합 시도”, 『역사학연구』 51호, 호남사학회.
- 함광복(2002),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Eastward.
- 홍금수(2009), “역사지리의 파국적 단절과 미완의 회복”,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vol.21. no.3.

- 관련 보도자료 및 인터넷 홈페이지

- G1 강원민방 : dmz스토리_106부 해안분지 영한중학교(2014. 3. 5)
- G1 강원민방 : dmz스토리_274부 고향 양구로 돌아오던 날(2017. 8. 5)
- 강원도민일보 : 민북마을 사람들 7_양구 해안면·고성 명파리(2006. 11. 7)
- 경향신문 :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해제 충주시·양구군등 3개지역 70여만평(1998. 1. 3)
- 철원군의회 11회 본회의 2차 회의록
- 철원군의회 제7회 본회의 3차 회의록
- 한겨레 : 양구 편치불 시래기. 지역 효자 노릇 톡톡(2016. 10. 31)
- 강원통계정보(<http://stat.kosis.kr>)

Abstract

Gangwon-do Villages in Civilian Control Zone : Experience, Memory, Future

Park, SoYoung · Gwon, TaeSang · Kim, DeokWoo

After the Korean War, civilian controlled areas were established along the line of demilitarization. The civilian controlled area consisted of various types of villages such as unified villages, reconstruction villages, and self-reliant villages. As a result, the village of Mindongseon basically became a space that kept the daily life and identity of the division while facing the demilitarized zone. In addition, the civilian line continued the tensions of division and control of daily life, compared to other regions where military tension was weakened due to prolonged division.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the state and the army continued as the state directly intervened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village.

Not all the villages of North Korea were showing similar development. Each village was slightly different in its development process due to its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distance from the demilitarized zone. Cheolwon-gun Yugok-ri was made under the plan of the state for the competition of the South-North system. As a result, the strong influence of the state and the military has continued for a long time, from the selection of the villagers to the operation of the villages. However, Yanggu-gu coastal area had migrants for various reasons from the people who lived before the formation of the

village. As the people's composition of the residents diversified, they actively realized their interests. In other words, although the general identity of the village is shared, the development pattern of the village is different due to various factors.

Currently, North Korean village i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More than 60 years after the village was established, the villages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gradually shrinking due to the death of the first generation migrants, the second generation migration, and the dismantling of the village. In addition,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will require the role of the border region, which can recognize and accommodate the fastest change and coordinate both sides in the village of Minbuk, which was a symbol of division and cold war near the armistice. The history and history of the first generation of villagers in the villages of Heukbuk Village will heal the pain of the last division and prepare for the future change of the village.



강원학 연구보고 4

강원도 민북마을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미래

Gangwon-do Villages in Civilian Control Zone : Experience, Memory, Future

2018년 12월 일 인쇄

2018년 12월 일 발행

발 행 인 : 육 동 한

발 행 처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전화 : (033) 250-2980, 2983

URL : <http://www.gangwonstudies.re.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